

## “특금법 재량권 남용”... 가상자산 업계, FIU 줄소송

〈금융정보분석원〉

### 스페셜 리포트

금융위원회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텔리오와 원화계좌 신고가 불수리된 한빛코는 곧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가상자산 업계와 3건의 법정 다툼을 진행 예정하고 있다. ▶ 관련기사 4면

앞서 6월 바이낸스의 고폭스 인수를 바라는 고파이 투자자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텔리오는 이달 안으로 소송을 공식 제기할 계획이다. 텔리오는 8월 말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내려진 18억 960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가상자산 거래소 한빛코 역시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FIU의 원화계좌 신고 불수리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한빛코는 9월 고객확인 의무(KYC)와 거래제한 조치, 가상자산 전송 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9억 942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현행 특금법 근거 없이 해석·적용 VASP 신고 불수리 등 처분 논란 한빛코 등 행정 소송 돌입 예고

금융당국 “법과 원칙 따라 대응”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권과 한 해 3건의 소송을 치르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가상자산 업권과 치른 소송은 최근 3년간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가 내린 제재에 반발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FIU에 대한 가상자산 업계의 소송도 함께 늘어난 형국이다.

이들 소송 3건의 공통점은 모두 ‘현행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상의 법률 공백’이다. 원고들 모두 현행 특금법에 명문화된 조항 없이 금융당국이 재량으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고파이 투자자들은 바이낸스의 해외 사법 리스크는 현행 특금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텔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등은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

장했다. 한빛코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는 특금법상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FIU 재량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기속 행위(행정청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처분)에 속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률 공백을 다룬 특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VASP 대주주 변경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이어 이달 VASP 신고 불수리 요건을 강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새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등을 금융당국이 신고 불수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 개정안 모두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법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제재 및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 특금법상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사업자가 충분한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갖췄는지, 시장 질서 저해 소지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특히 텔리오는 AML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아주 많은 고객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유리 기자 inglass@



태극기 된 손도장

사단법인 국학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100만 손도장 태극기 그림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 그림에 손도장을 찍으며 색을 입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의혹 전수조사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행정사1국은 20일부터 KB국민은행에 조사 출장(현장점검)을 나가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발행 및 만기도래 현황, 손실 예상액, 은행과 증권사 측

대응방안 등을 살피고 있다. 검사 기간은 최대 2주 일정이다. ▶ 관련기사 5면

하나·신한·우리·NH농협 등 주요 판매 은행들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증권사 중에서도 최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 5~6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원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이 제일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일종의 샘플로 조

사를 먼저 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판매 현황과 고객의 ELS 관련 민원에 은행과 증권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ELS 관련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따져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법 실행과 맞물려 대부분 판매 과정에서 녹취와 자필 서명이 이뤄져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 알림

#### 신문구독료 월 2만원으로 조정합니다

투자뉴스에 강한 경제지 이투데이가 내년 1월부터 신문구독료를 현행 월 1만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개별 부수판매가격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합니다.

구독료를 인상은 창간 이후 처음으로, 이투데이는 다른 신문이 구독료를 인상하는 동안에도 자체 비용 절감 등 자구 노력과 내부 감내를 통해 구독료 인상을 늦춰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배달비 등 각종 부대비용 상승으로 부득이 구독료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투데이는 이번 구독료 조정을 계기로 더 깊이 있는 경제 정보와 다양한 읽을거리 등 양질의 콘텐츠 제공과 지면 증명으로 독자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이투데이를 사랑하는 독자께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출근할 때 뺐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코드 뽑기 0.32kWh
- 자기 전에 끄고**  
TV 셋톱박스 전원끄기 0.08kWh
- 함께 모여 바꾸고**  
LED고효율 조명으로 교체 0.54kWh
- 그때그때 비우고**  
냉장실 20% 비우기 0.1kWh+전기밥솥 비우기 0.06kWh



### 우리가족 팀플레이. 1kWh 줄이기 로부터 시작

뺐고, 끄고, 바꾸고, 비우고  
가족 모두 각자 할 수 있는 1kWh 줄이기를 실천해 보세요.  
네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  
어렵지 않게 하루 1kWh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부산’스러운 파리... 재계 ‘엑스포 유치’ 막판 스퍼트

## 개최지 선정 최종투표 D-1

정부·기업 ‘코리아 원팀’ 홍보 삼성, 대형 옥외 광고판 응원 현대차 아트카, 주요지 순회 LG, 시내 곳곳 래핑버스 운행 SK, 브랜드 캠페인 영상 송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재계가 부산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최종 개최지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173차 총회에서 결정된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순방 기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막바지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다.

윤 대통령은 파리 도착 첫날인 23일 주유네스코 대표부 주재 만찬을 시작으로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삼성전자가 파리의 ‘오페라 가르니에’의 대형 옥외광고에 ‘갤럭시 Z 플립5’와 부산엑스포 로고를 선보이고 있다(사진 왼쪽 첫 번째). LG가 운영하는 부산엑스포 홍보 버스(두 번째)와 현대차그룹의 아트카 차량(세 번째)이 파리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부산을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LG·현대차그룹



주최 오찬, 주프랑스대사관 주최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등 강행군을 이어갔다.

24일 BIE 회원국 대표단 오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를 각국의 문화와 기술, 생각이 더 넓게 확산되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후 파리 브롱니아르궁에서 BIE 회원국 대표 등 파리 주재 외교단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국은 일제 강점, 6·25전쟁 등 수많은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호소했다. 국경일 리셉션에는 민간 유치위원장이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 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주)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6일 파리로 출발해 최종 유치전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용 인적 네트워크

를 활용한 맞춤형 설득 작전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정부와 민간 등 모든 주체들이 ‘코리아 원 팀’이라는 기조 아래 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들도 막바지 표심 잡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립 오페라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의 대형 옥외광고에 ‘갤럭시 Z 플립5’ 이미지와 함께 부산엑스포 로고를 함께 선보이고 있다. 또 샤를드골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14개 대형 광고판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했다.

현대차그룹은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등 주요 명소와 BIE 본부, 각국 대사관 근처를 순회하는 아이오닉6와 EV6아트카 10대를 투입했다. 부산엑스포가 다른 도시와 달리 ‘탄소중립 엑스포’를 차별점으로 내세운 만큼 전동화 차량을 활용했다. 아트카 외관에는 부산의 주요 상징물과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부착했다.

LG전자는 부산을 홍보하는 이미지와 ‘LG는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지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랩핑 버스를 3주간 운행한다. 이 버스는 파리 시내 곳곳을 누비며 최종 투표 전까지 부산엑스포를 알린다.

SK이노베이션은 SK서린빌딩과 전국 사업장, 주유소 등에 홍보물을 마련하고, SK이노베이션이 후원하는 발달장애인음악축제(GMF) 행사장에 유치 기원 부스를 마련한 데 이어 브랜드 캠페인 영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부산엑스포를 홍보할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viajeportune@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블프’ 美 소비 살렸지만... 산타렐리는 ‘불투명’

### 온라인 매출 98억 美 ‘사상 최대’ 고금리·물가에 지속 여부 부정적

올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에서 온라인 지출이 우려와 달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지출이 가장 열기를 꺼릴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소매 매출은 크게 늘었다. 다만 이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약

시오스에 따르면 어도비 산하 데이터 분석기관 어도비애널리틱스는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인 24일 온라인 소비자 지출이 전년 대비 7.5% 증가한 98억 달러(약 13조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사상 최대치로, 증가율과 지출 모두 추수감사절 성적을 크게 웃돌았다. 추수감사절 지출은 5.5% 증가한 56억 달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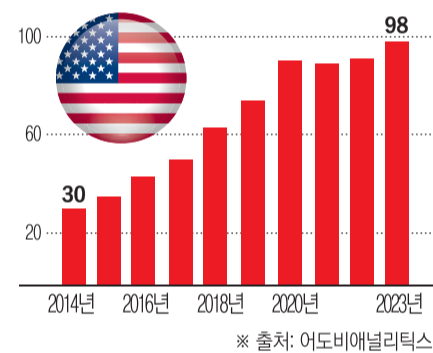
모바일을 통한 구매가 전체 53억 달러에 달했다. 어도비는 이번 쇼핑 시즌 모바일

구매가 처음으로 PC 등 기타 온라인 구매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마스터카드의 소비자 지출 패턴 분석 데이터인 스펠링펄스 보고서에서도 이 기간 오프라인 매출은 1%가량 증가한 반면, 전자상거래는 8.5% 증가하며 전체 매출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가 행사를 예년보다 일찍 시작한 데다 소비자 지출이 움츠러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추수감사절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로 이어지는 전통 행사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지출 (단위: 억달러)



서만큼은 소비 강세를 유지했다고 약속하는 듯했다.

다만 업계는 연말 부진한 쇼핑 시즌을 전망했다. 어도비는 향후 2개월간 온라인

매출 증가율이 4.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 기록한 연평균 13%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일즈포스도 11~12월 온라인 매출이 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팬데믹 기간 부양책과 저금리로 현금을 대거 보유했던 소비자들은 이제 고금리와 치솟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현금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차입비용은 늘고 저축은 주는 상황이다.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트의 비백 판디아 수석 애널리스트는 “현재 소비자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2024 한글과컴퓨터 비즈니스 파트너 모집

한컴오피스와 더불어 한컴의 미래 사업을 함께 이끌어 나갈 비즈니스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신청 접수** 2023.11.20(월) ~ 2023.12.01(금)

**선정 공지** 2023.12.26(화) \* 선정 기업 개별 통보,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모집 대상**

구분	모집대상	비고
컨트롤러	시장별 0개사	공공·교육·엔터프라이즈·SMB
BP 파트너	시장별 00개사	공공·교육·엔터프라이즈·SMB
VP 파트너	시장별 00개사	컨슈머·COEM·FPP

**접수 방법** 홈페이지 내 '비즈니스 파트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접수

**문의·접수** partner@hancom.com

\* 상세 내용 : 홈페이지(www.hancom.com) 참고

# 반도체 살아났지만... 올해 1% 초반 저성장 못 피한다

## 성장을 1.4% 목표 달성 불투명

최근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1%대 저성장 전망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D램 값 회복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지만 정부가 목표치로 세운 올해 1.4% 경제 성장률 달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6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1~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1.06%(속보치) 증가했다.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9%에 그쳤던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 1.4%를 기록하면서 1%대에 안착한 것이다. 3분기 성장률이 1~2분기보다 확대된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3분기 순수출(수출-수입) 성장 기여도는 1.4%포인트(p)다. 수출 성장 기여도(1.6%p)가 수입 성장 기여도(0.2%p)를 크게 웃돈 결과다. 3분기에 수출이 개선돼 전체 성장률 상승을 이끌었다는 얘기다. 지난달에는 우리 수출이 전년 대비 5.1% 늘어 13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주력제품인 D램의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반도체 기업의 실적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D램 시장이 바닥을 지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D램 시장 총 매출액은 132억4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1분기 93억7000만 달러로 저

D램값 바닥 찍고 수출 늘었지만 3분기까지 연 1.06% 성장 그쳐

## KDI “시장금리 상승·중동전쟁 불확실성 확대가 경제하방 요인”

점을 찍은 뒤 2분기 111억7000만 달러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시장 점유율로 보면 삼성전자가 점유율 39.4%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35.0%로 2위를 기록했다. 점유율 35.0%는 SK하이닉스의 역대 최대 시장 점유율이다. 기업별 D램 매출액은 삼성전자 1분기 40억 달러에서 2분기 44억 4000만 달러, 3분기 52억 달러로 늘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23억2000만 달러, 2분기 34억4000만 달러에 이어 3분기 46억3000만 달러로 올랐다. 매출액 성장률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경기 회복에 대한 청신호는 커졌지만, 연간 1%대 성장은 굳어지는 분위기다. 앞서 상반기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이는 종전 전망치(각각 1.6%)보다 하향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5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낮췄고, 최근 국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공통적으로 이들 기관은 상반기에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심화된 점을 1%대 전망의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잡은 1.4% 성장 달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장률 1.4% 달성을 위해선 올해 남은 4분기(전년 동기 대비)에만 2.4% 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수출 증가가 지속되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게 중론이다. 올해 1분기(0.9%)·2분기(0.9%)·3분기(1.4%) 모두 0~1%대 성장에 그쳐서다. 더욱이 현재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KDI는 ‘11월 경제동향’을 통해 “통화 긴축 기조로 미국의 국고채 등 시장금리가 상승해 국내 시장금리도 큰 폭으로 올라내수 경기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 여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우려도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이민재 기자 2mj@



## 2018년부터 연 3% 성장 한번뿐 국내외 기관 “내년 2% 초반 예상”

### 저출산·저성장 고착화 우려

가계빚 부실화 땀 2% 성장도 흔들 2021년만 코로나 기저효과 3%대

우리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저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외 주요 경제 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장의 성적표보다 향후 성장 동력을 보여주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안정적인 성장률로 불리는 3% 성장을 기약할 수 없는 셈이다.

2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국제연구기관(KDI)도 IMF와 같은 2.2%를 제시했다. 두 기관이 제시한 2.2%는 종전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p), 0.1%p 하향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보다 낮은 2.1%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2.2%, 2.0%의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기관이 2%대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올해 저성장 대안 기저효과 및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내년 한국 성장률이 올

해보다 개선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고금리하의 부채 부담 증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경직성에 따른 통화정책 전환 시점의 지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장기화 및 확산 우려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저하 등으로 현저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된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빠른 속도로 재증가하고 있는 가계 등 민간부채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현실화돼 금융시장의 위기로 파급될 경우 2.0% 수준의 낮은 성장률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관들의 예측대로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2%대 성장률을 기록하면 윤석열 정부는 2022년(2.6%)을 시작으로 3년 연속 저성장이란 성적표를 받게 된다. 그만큼 안정적인 성장률로 불리는 3% 성장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이상 성장 달성은 코로나19 사태로 역성장한 2020년(-0.7%) 다음 해인 2021년(4.1%)을 제외하면 2017년(3.2%) 이후 없는 상태다.

우려스러운 점은 저출산 심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이 2018~2022년 2.4%에서 2023~2027년 2.1%로 0.3%p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언젠가 내 여정은 지금보다 훨씬 즐겁고 더 안전할거야.”

더 즐겁고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기술이 만듭니다

HYUNDAI MOBIS

〈특금법 개정안〉

# 매뉴얼도 없는 법으로 '원화거래 차단'... 법조계 일각 "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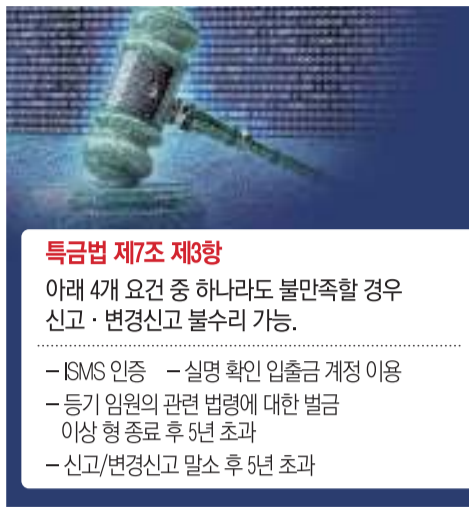
## 가상자산 업계, FIU 주소송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 "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 신고제에 심사...법적으로 안돼 국회,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 내년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 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조계의 시각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빛코는 이달 초 FIU로부터 원화거래소 변경 신고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앞서 9월에는 FIU 제재로 인해 20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와 기관주의 처분 등도 받았다. FIU는 한빛코의 원화거래소 변경 신고 불수리 이유로 △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책의 위법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책의 구축 및 운영 능력 미흡 등을 꼽았다.

문제는 현행 특금법에 이 같은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금법 제7조 제3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 특금법 제7조 제3항

아래 4개 요건 중 하나라도 불만족할 경우 신고·변경신고 불수리 가능.

- ISMS 인증 -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 등기 임원의 관련 법령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 FIU 제재·변경신고 불수리 현황 및 법률상 쟁점

가상자산사업자	한빛코 Hanbitco	고팍스 GOPAX	델리오 delio
신고·제재 내용	원화거래소 변경신고	대표자 변경신고	-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 거래 -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교환 중개
FIU 판단 및 이유	- 변경신고 불수리 - 자금세탁방지 역량 미비	- 대주주 바이낸스 美 법률 위반 가능성	- 과태료 19억원, 영업정지 3개월 - 특금법 위반
법률상 쟁점	- 심사 내용은 특금법 내용으로 국한돼야 하는데, 당국이 재량적 확대해석 - 자금세탁방지 역량은 불수리요건 해당치 않아	- 바이낸스는 대주주일뿐, 국내법상 범죄도 없어	- 현 특금법은 거래소, 지갑, 커스터디 한정 - 델리오는 운용업,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

등을 나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4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거짓으로 조건을 만족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FIU가 변경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A법무법인인 "변경신고 시 금융당국이 심사하는 것은 '변경신고서 및 불수리 사유'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FIU 원장은 심사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재량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특금법령 및 변경신고 매뉴얼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사업자로서는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수리가 거부되는 것으로,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도 "특금법 제7조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법적 성격이 '수

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는 있다"면서도 "현 신고제도가 가상자산업을 독립된 업권으로 보지 않고, 최소한의 신고의무를 부과해 자금세탁방지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고 불수리 사유 이외의 사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 내놓기도 했다.

고팍스 관련 법률 분쟁은 특금법 제7조 제3항 제3호의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해석이 핵심이다. 특금법 제7조 제3항 제3호는 53개의 관련 금융법률을 제시하며,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FIU 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파이피해자연대대표를 맡은 심재훈

변호사는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미국 규제 당국간의 법률문제는 특금법상의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금법에 제시된 법령은 국내법에 국한되므로, 바이낸스의 미국에서의 자금세탁·제재 위반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바이낸스는 고팍스의 대주주로, 바이낸스 측 인사는 현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심변호사는 이같은 시각을 재판부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변호사에 따르면 9월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특금법 제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등기 임원은 금융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수리하게 되어 있다"면서 "만약에 이 법에 외국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면 그 는 이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델리오 측이 내세우는 쟁점은 특금법상 사업자의 범위이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커스터디 사업자가 기준이라면서 가상자산 운용사로 현 특금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등의 불수리 요건을 강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길지는 불투명하지만, 세 사업자 모두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 사업자 갱신 신고를 앞두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안유리 기자 inglass@

〈가상자산 사업자〉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 도끼는 든 FIU에 VASP 벌벌

금융당국 연이은 제재에 법적 리스크↑  
종합검사 결과로 존폐 결정 시장 불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상대로 갱신 신고를 예고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법률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FIU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VASP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업자들이 2021년에 사업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부분의 VASP가 갱신 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37곳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27곳,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가 10곳이다. 특금법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자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자료 등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FIU 원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FIU의 최근 행보가 신고제지만, 사실상 허가제에 준한 운영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고팍스는 3월 바이낸스를 대주주로 들이면서 바이낸스 측 임원들을 임원으로 올렸다. 이후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수리 결과 통지 기한인 45일을 훨씬 넘은 현재까지 수리에 대한 결정 여부를 유보하고 있다.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인 한빛코는 6월 지방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을 체결하고 FIU에 원화 거래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한빛코 변경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금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며 20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지난달 특금법상 신고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한빛코의 원화마켓 사업자 변

코인마켓 거래소 갱신 신고 예정 날짜 \* 출처: 금융정보분석원(FIU)

플라이빗	2024년 11월 30일
지닥	2024년 11월 28일
BTX	2024년 12월 8일
프로비트	2024년 12월 8일
포블	2024년 12월 20일
후오비코리아	2024년 12월 20일
코어박스	2024년 12월 16일
플랫타익스체인지	2024년 12월 22일
한빛코	2024년 12월 22일
비블록	2024년 12월 22일
비트레이드	2024년 12월 22일
오케이비트	2024년 12월 29일
빗코론	2024년 12월 29일
프라방	2024년 12월 29일
코인엑코인	2024년 12월 29일
보라비트	2024년 12월 29일
캐서레스트	서비스 종료 예정
텐맨	2025년 1월 3일
에이프로빗	2025년 1월 3일
오아시스거래소	2025년 2월 9일
큐비트	2025년 2월 9일
코인빗	서비스 종료 예정

경신고 불수리 결문을 내렸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FIU가 한빛코를 상대로 낸 처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갱신 신고 또한 법령에 따라 이뤄질지 담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올해 들어 코인마켓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종합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갱신 신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FIU 관계자는 "사업자 갱신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건 맞는다"면서도 특금법에 명시된 갱신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종합검사 결과도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을 위한 제출 서류에는 종합 검사 결과와 관련한 문항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갱신 신고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갱신이 되는 게 맞는다"면서도 "제재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에서는 이달 특금법 개정안 발의로 VASP 신고 수리 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갱신 신고를 앞둔 사업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년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 후 약 7개월 만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이번 개정안도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 "규제 문턱·수익성 담보... 이중고" VASP 창업자 '非거래소'로 피신

가상자산 시장이 법률의 공백에 따른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조치에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이 늘어난다. 동시에 새롭게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준비하는 업체 대부분이 비거래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

르면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에 비인증 받은 업체는 총 20곳으로 이 중 13곳이 거래소 사업이 아닌 다른 범위로 인증받았다. VASP는 총 35곳으로 그중 가상자산 거래소는 26곳, 지갑·보관업자는 9곳이다. 최근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가상자산거래소 캐서레스트와 코인빗을 제외하더라도 VASP 대다수가 거

래소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예비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피닛블록 △한빛코코리아 △하이블록 △스토마토체인 △하루인베스트 △오션스 △업라이즈 △체인파트너스 △해피블록 △웨이브릿 △람다256 등이다.

업계는 VASP 사업 범위 비중이 바뀐 것을 두고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기에 불안정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경우 다른 사업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원화거래가 되지 않으면 매력 떨어지는 거래소 사업 특성상

지금 진출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으며 불장이 이어지던 2021년에도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는 영업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2021년도 사업실적이 올라오지 않은 플라이빗, 프라방, 에이프로빗, 큐비트와 영업이익을 기록한 지닥, BTX, 후오비코리아, 플랫폼타익스체인지, 텐맨 등 을 제외한 14개 거래소는 호황임에도 영업적자와 손실을 기록했다.

거래소와 비거래소 사업자의 몸집 차이도 명확히 드러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

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화 거래소 종사자 수는 평균 275명,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26명으로 조사됐다.

규제에 따른 거래소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고착화 시장의 확장성을 저해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수수료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상 수익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진 거래가 불가능한 국내 거래소 특성상 할 수 있는 사업이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 ‘홍콩ELS’ 수조원 손실 우려... 은행 “불완전판매 아니다”

**‘홍콩 H지수’ 폭락 여파 대응**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 물량 8.3조  
KB국민 절반 이상인 4.7조 보유  
녹인형 ELS 비중 커 손실우려 ↑  
은행권, TF구성·직원 세미나 등  
고객 관리·리스크 최소화 나서



홍콩 H지수 폭락 여파로 은행권에서 판매된 H지수 기초주기연계증권(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은행권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상품 설명 과정을 모두 녹취했고, 펀드와 달리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2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을 통해 판매된 홍콩 H지수 연계 ELS 중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 물량은 8월 말 기준 8조216억 원 규모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이 4조7447억 원으로 은행권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어 신한은행(1조3329억 원), 하나은행(7380억 원), NH농협은행(7330억 원), SC제일은행(6187억 원), 우리은행(367억 원) 순이다.

ELS는 주가 지수나 특정 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상품이다. 통상 ELS는 만기가 3년이다. 만기 시점에 지수가 판매 시점보다 35~55% 이상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H지수는 2021년 초 대비 현재 44% 넘게 하락했다. 1만2000선을 넘었던 때비해서는 반 토막 난 셈이다. H지수는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 중 50개 기업을 추려서 산출한 지수다. 텐센트 홀딩스와 알리바바 그룹, 샤오미 등 우량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ELS 기초자산으로 많이 사용됐지만, 중국 부동산 리스크와 경기 침체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판매분 중 손실 발생 구간(녹인·Knock-In)에 진입한 ELS 잔액은 4조6434억 원이다. 특히, ‘녹인형 ELS’ 비중이 높아 원금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녹인형 ELS는 3년 계약기간 중 녹인 구간에 한 번이라도 진입하면 만기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당시보다 30~35% 넘게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한다.

‘노(no)녹인형’을 판매한다면 은행들도 손실로부터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노녹인형은 계약 기간에 주가가 얼마 떨어지든 상관없이, 만기 때 조기상환 조

건에 충족하면 약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꼽히는 노녹인형이라도 만기 때 가입한 시점보다 지수 하락 폭이 65% 안팎이어야 하는데, H지수 상황을 고려하면 녹인이나 노녹인이냐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ELS와 비슷한 구조지만, 만기가 없는 주기연계펀드(ELF)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8월 말 기준 5대 은행이 판매한 ELF 잔액은 5805억 원이다. 이 중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한 잔액은 2757억 원이다. 만기가 도래한 잔액 중 1169억 원이 손실 발생 구간에 진입했다.

손실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면서 은행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들의 항의를 우려해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휴직을 신청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손실 가능성이 있다 보니 투자행위 자체를 취소하고 싶은 마음에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

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LS 고객 대상으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황과 시장 전망을 안내한다. 신한은행은 6월 주기연계신탁(ELT) 사후관리 TF를 발족했다.

NH농협은행은 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한 TF가 구성돼 있다. 지수 추이 보면서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장문 문자메시지(LMS)를 통해 홍콩 H지수가 편입된 상품의 최초 손실구간 진입 시부터 지속적인 안내와 함께 구간단위 H지수 시황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관리 영업점에서 전 고객과 접촉해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점 직원들의 시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월 증권사 애널리스트 초청해 시장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유하영 기자 haha@

## 공무원·군인, 희망직업 첫 10위권 밖 중학생 41% “뭘 해야 할지 아직 몰라”

**2023 진로교육 현황조사**  
1년새 공무원 7순위·군인 8순위 ↓  
톱3는 비슷... 신산업 분야 희망 ↑

초·중·고 장래희망 조사에서 공무원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거센 ‘의대 열풍’으로 의사를 꿈꾸는 학생이 늘어난 반면 자기적성을 파악하지 못해 희망 직업이 없는 학생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26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2015년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래 교육부가 직능연에 의뢰해 매년 실시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은 초·중·고 희망 직업 ‘톱 10’에 모두 들지 못했다. 중학생은 지난해 10위였던 ‘공무원’이 올해 17위로, 고교생은 ‘군인’이 3위에서 11위로 크게 밀려났다. 2015년 첫 조사 이후 중학생 희망직업 상위 10위에서 공무원이, 고교생 10위권에서 군인이 빠진 것은 처음이다.

초·중·고 희망 직업 톱3는 교사와 의사, 운동선수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13.4%)였다. 2위는 의사(7.1%)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반면 3위 교사(5.4%)는 한 단계 하락했다. 4위는 크리에이터(5.2%)가, 5위는 요리사·

조리사(4.2%)가 각각 차지했다. 중학생의 희망 직업 상위권도 △교사(9.1%) △의사(6.1%) △운동선수(5.5%) △경찰관·수사관(3.8%) 순으로 변동이 없었다.

고등학교생도 1·2위가 지난해와 같은 교사(6.3%)와 간호사(5.9%)였다. 이어 3위는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한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3.7%)이 차지했다. 4위는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 개발자(3.6%), 5위는 의사(3.1%)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이전에 이뤄져 교권 침해 이슈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도 초등학생 20.7%, 중학생 41%, 고등학생 25.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학생 비중은 2018년 이후 매년 상승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부분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초등학생 43.9%, 중학생 54.6%, 고등학생 40.2%)이거나 ‘내가 잘하는 것(강점)과 못하는 것(약점)을 몰라서’(초 20.9%, 중 19.8%, 고 29.7%)라고 그 이유를 답했다.

신산업 분야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3D프린팅 전문가와 드론전문가, 로봇공학자, 생명과학자 등 신산업 분야 직업을 희망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중학생의 경우 2013년 3.5%에서 올해 5.3%로, 고등학생은 3.6%에서 11.6%로 확대됐다.   
손현경 기자 son89@

# 신한알파로 자산이 알파만파

## 알아서 챙겨주는 투자메이트 신한투자증권 신한알파 3.0

- ☑ 다른 증권사의 보유종목도 편하게 관리하고
- ☑ 투자자들의 매매 정보도 한눈에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국내주식 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91639%(거래금액, 국가별 상이)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2285호 (2023-06-26 ~ 2024-05-31)

# 尹, 열흘 만에 국내 업무 복귀... 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 28일 국무회의서 순방성과 보고 노봉법·방송3법 거부권 가능성 행정전산망 마비 관련 메시지도 대규모 개각·대통령실 개편 검토



경기 성남시 서울공향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8일 귀국했고, 20일 다시 출국해 영국을 국민 방문했다. 이어 프랑스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파리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등을 대상으로 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을 벌였다.

귀국한 윤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순방 성과를 국민 앞에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들은 17일 정부에 이송됐으며, 대통령은 이로부터 15일 이내인 내달 2일까지 법안을 서명·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이미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

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정부와 경제·산업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큰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 법무부·외교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에 출마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후에도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등 일주일 사이에만 4번의 먹통 사태를 빚었다. 정부가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원인 규명과 대응이 늦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재발 방지를 주문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손잡은 한일중 외교수장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APEC 누리마루에서 열린 한일중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중 외교장관이 나란히 서 있다. 이날 세 나라 장관은 3국 정상회의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가미키와 요코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연합뉴스

## 김기현 국정원장 사퇴...尹대통령 사표 수리

### 1차장·2차장 모두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기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준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과 2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와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26일 김기현 국가정보원장, 권준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신임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신임 1차장은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김기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임 1·2차장은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영국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정원 수뇌부 교체 인사를 실시한 것을 두고, 6월 이후 국정원 내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외부로 불거진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연말 개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 민주당 "자체 수정안" 으름장에 올해도 예산안 '지각처리' 우려

### 예결특위 '소소위' 꾸려 심사 착수 지역화폐 등 이견 팽팽... 합의 난항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 지연에 유감을 표한다"며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16곳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해 절반의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여당의 일성이다. 예결위원과 여야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가 27일부터 시작될 거란 전망이지만 이견이 커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예산안 심사 결과 및 향후 심사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다면 국회는 심의하는 권한이 있다.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2조원 가량 감액한 예산 수정안을 마련해 단독 의결을 코앞에 두고 여야 합의로 철회했다. 이번에도 정부·여당이 증액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 정부 동기가 필요한 증액을 제외한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를장을 놓은 셈이다.

강 간사는 "1일 공청회부터 부별심사, 종합정책질의, 조정소위까지 약 4주간 책임 있는 정부·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마치 시간끌기만 하면 야당이 불리해질 거란 생각을 가진 듯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이 국회법 제53조3 본회의의 자동 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3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부수법안 등의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다음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민주당 협조 없이 의결은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수정안을 두고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기간 동안 여야 간 갈등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의결과 그에 대한 반발 구도로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은 27일부터 소소위에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화폐상품권·국제지원사업(ODA)·특수활동비·국제협력 연구·개발(R&D) 예산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영민 기자 oin@

## 與 혁신위-지도부 갈등 최고조... 이번주 분수령

국민의힘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갈등이 이번 주 분출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들이 팽팽한 살바 싸움을 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말까지 나온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친윤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협치 출마 권고안을 혁신안으로 정식 의결해 당 최고위원회에 올릴 방침이다. 시점은 3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원 사퇴나 조기 해체 등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혁신위 회의에서는 혁신위 조기 해체론을 두고 비정치인 출신과 정치인 출신 위원들과의 격론이 오갔다. 비정치인 출신 위원들 사이에서는 사퇴설까지 흘러나왔다.

혁신위는 김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인요한 위원장은 2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희생'을 강조했다. 그는 원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전 계양을 출마를 시사한 것에 대해 "우리 혁신위(가 희생)를 촉구한 이후) 첫 행동"이라며 "국민이 표로 보답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기현 대표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는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 혁신위, 조기해체 가능성 열어놓고 '중진 불출마·협치 출마' 수용 압박 30일께 혁신안으로 정식 의결할 듯 조기해체 땀 지도부 책임론 불가피

울산을 찾아 세 차례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의정보고회를 한다고 하니 '왜 의정보고회 하나'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 황당하다"며 "내 지역구가 울산이고, 내 고향도 울산이다"라고 강조했다. 혁신위가 권고한 용퇴론을 사실상 무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혁신위가 조기 해체를 선언하

면서 김 대표 체제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혁신위를 만들어 괜히 당내 분란만 일으켰다고 해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서울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새신책으로 김 대표가 구성한 당내 위원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2의 비대위'를 점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24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김 대표에 대한 역할 수행 평가는 긍정 26%를 기록했다.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과 중도층, 무당층에서 과반수가 '잘못한다'고 봤다. 여론 관계자는 "서울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일부 최고위원들만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며 "그 이후에도 당이 달라진 것이 없다. 이대로 가다간 총선에서 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당원들부터 반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Lifetime Value Creator

www.lotte.co.kr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세필드 vs 올버햄튼전 등 주요 EPL 경기 구장 광고

'어메이징 벨리곰' 뉴욕·시드니·하노이 등 해외 투어

롯데디자인츠 '엑스포 유치기원 유니폼' 착용

프랑스 현지 엑스포 결선 투표장 일대 유치기원 광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롯데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롯데

# “주요국 내년 금리 인하 일러… 韓정부, 재정 긴축 필요”

## BIS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국제결제은행(BIS)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이 현재 고금리 기조를 물가 안정을 확신할 때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 은행 등이 공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24일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물가가 충분히 안정화됐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물가가 안정돼서 통화정책 영향이 충분히 발휘가 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묻자 “언젠가는 하겠지만 당장 내년이라고 하기는 이르다”라며 이 같이

## 대다수 중앙銀 인상 끝났지만 물가안정 때까지 고금리 유지될 韓 GDP 대비 부채 비율 안정적 가계부채 위해 주택가격 낮춰야

말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물론 단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율에 따라 충격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재정·통화정책

수단은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10년에서 15년 정도 오랜 기간 많은 국가들이 저금리 환경에 처하면서 재정 정책이나 통화정책 모두 완화적이고 확장적인 정책을 운용했지만 이러한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구조개혁을 제안한다. 구조개혁을 통해서 생산성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재정 확대가 물가 안정을 조금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모두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수용할만한 수준이고 한국이야말로 안정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신현승 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구조개혁에 대해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단기적인 정책을 떠나서 경제 체질을 강한 쪽으로 바꾼다는 취지인데 우선 한국에서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는) 재정 지속 가능성, 연금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우선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는데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간단한 정책을 쓸 수는 없다.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모든 분야에서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한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묻자 “복잡한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주택 개발은 좁은 국토 면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 생각한다”며 “구조적 이슈에 있어 지방 정부나 프로젝트 디벨로퍼(project developers), 은행들이 모두 같이 공조해서 주택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가 넘는 상황인데 이것은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문제고,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후속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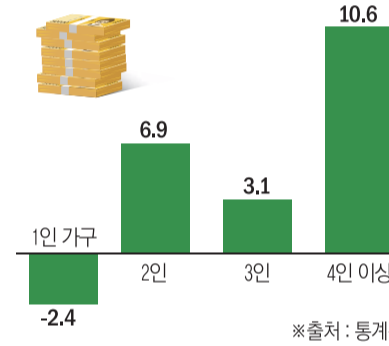


**감값 평년보다 52% 상승** 겨울철 대표 간식인 감값 가격이 1년 전보다 10% 이상 올랐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4일 기준 감(노지) 소매가격은 10개에 3564원으로, 1년 전 3141원보다 13.5% 비쌌다. 이는 평년 가격(2998원)과 비교하면 18.9% 높다. 평년 가격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값이다. 사과(후자·상품) 가격은 10개에 2만8442원으로 1년 전보다 27.1% 비싸고 평년보다 29.3% 높다. 단감(상품)은 10개에 1만6354원으로 1년 전과 평년과 비교해 각각 46.5%, 51.7% 비쌌다.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 나홀로 가구 소득, 나홀로 줄었다

2.4% ↓ ... 4인 가구 10.6% ↑  
20대 이하 독거 줄고 노인 늘어

가구원수별 소득 증감률 (단위: %) ※2023년 3분기 월평균 소득 기준(전년 동기 대비)



1인가구의 소득이 가구원수별로 집계된 소득 통계에서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얇아진 지갑 탓에 1인 가구 소비 증가율도 2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8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줄었다. 반면 2인 가구는 6.9%, 3인 3.1%, 4인 이상 가구는 10.6% 늘었고 전체 평균도 3.4% 증가했다.

1인 가구는 근로소득이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인 3.8% △3인 7.8% △4인 이상 8.2%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가장 낮다. 1인 가구의 사업 소득과 재산소득도 각각 15.6% 급감했다.

소득에서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도 1인 가구만 줄었다. 1인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17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다. 반면 2인(7.0%), 3인(3.0%), 4인 이상 가구(10.0%)에서는 증가했다.

1인 가구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 증가율은 2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1.3%로 2021년 1분기 1.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들은 의류·음식·숙박 등에 쓰는 돈을 줄였다.

의류·신발의 소비는 7.9% 감소해 2020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3분기 의류·신발의 물가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7.8% 올라 1992년 1분기(8.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탓도 있다. 외식비와 호텔 숙박료 등이 포함된 음식·숙박 지출도 3분기 0.1% 줄었는데 11개 분기만에 처음 감소한 것이다.

반면 식료품·비주류 음료 소비는 3.8% 늘면서 2021년 4분기(3.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들쭉거리면서 필수용품 지출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거·수도·광열 지출도 11.7% 상승했고 이중 실제 주거비(월세 등 임차로 인한 비용)도 8.4% 증가했다.

통계청의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2021년 33.4%에서 2050년 39.6%로 증가한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노인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 가운데 20대 이하 비중은 2005년 22.8%였으나 2050년에는 7.5%로 축소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2005년 17.3%였던 70세 이상의 비중은 2050년 42.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 필리핀 바다뱀 여수서 첫 발견... “난류 영향”

〈명독, 일반 독사의 20배〉

필리핀과 같은 열대·아열대성 기후 지역의 해양생물인 ‘넓은띠큰바다뱀’이 전남 여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열대·아열대성 해양생물의 유입은 따뜻한 쿠로시오해류의 지류인 대마난류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국립공원 섬 지역을 대상으로 수중생태계를 조사하다 ‘넓은띠큰바다뱀’을 전남 여수 향일암에서 남쪽으로 34km 떨어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무인도서인 소간여에서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넓은띠큰바다뱀은 코브라과의 해양파충류로 필리핀, 일본 남부 오키나와와 대만 인근의 따뜻한 바다에 주로 서식한다. 주로 바닷속에서 생활하나 육지에서 번식과 산란 그리고 탈피하는 생태적 특징이 있으며 일반 독사보다 20배 이상 강한 맹독을 지니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산호충류 ‘밤수지맨드라미’도 거문도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다. 일본 타니베만, 인도양 등에서 주로 분포하고 국내에서는 제주도 인근 바다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밤수지맨드라미는 산호충류에 속하며, 붉은색의 촉수를 모두 펼쳤을 때 밤송이를 닮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주로 수심 5~25m에 서식한다. 산호충류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연구에 중요한 분류군이다.

온대기후 지역인 한국의 국립공원 해역에서 열대·아열대 해양생물이 유입되는 원인은 수온 상승과 난류 확장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해역에 열대·아열대성 해양생물의 유입은 따뜻한 쿠로시오해류의 지류인 대마난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6.5억 총 5억8799만원 행사 비용 전가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매장 임차인에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전가한 대형 아울렛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폐를 맞았다. 이번 제재는 2019년 4월 시행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한 최초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현대백화점 계열사) 등 4개 대형 아울렛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롯데쇼핑엔 3억3700만 원, 신세계사이먼엔 1억4000만 원, 현대

백화점엔 1억1200만 원, 한무쇼핑엔 59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5월~2020년 6월 중 임차인들과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약정하지 않고 임차인들에 총 5억 8799만 원의 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롯데쇼핑은 216개 임차인에 1억1806만 원을, 신세계사이먼은 177개 임차인들에 2억537만 원을, 현대백화점 및 한무쇼핑은 80개 임차인들에 2억6455만 원을 가격할인 비용 명목 등으로 각각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사가 임차인과 판매촉진 행사를 하기 전에 행사의 명칭, 기

간 및 소요 비용 등을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에 부담토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아울렛은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하고, 임차인 간 행사 내용도 ‘가격 할인’, ‘1+1 행사’, ‘정액 할인’ 등의 차이가 있는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하고, 다른 임차인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 가능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곳이 주체가 돼 전체 행사를 기획·진행하고, 행사 내용도 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해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2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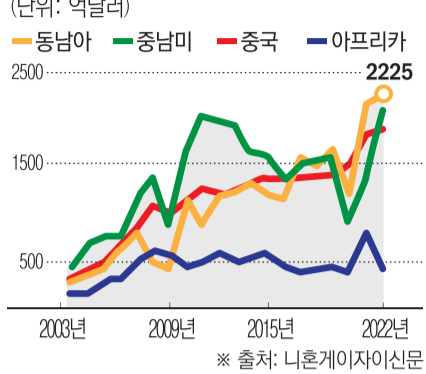
## 롯데·신세계·현대百,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겨

# 동남아, 역대 최대 투자 유치... 미·중 싸움 '어부지리'

작년 11개국 290.6조원 투자 무역마찰 이전보다 40% 증가

중국 대체 생산기지로 급부상 미·중 기업 동남아 M&A 활발

주요 국가·지역의 대외직접투자 규모 (단위: 억달러)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동남아시아가 인기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26일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동남아시아 11개국에 대한 투자 금액은 2225억 달러(약 290조 5850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7년 대비 40% 급증한 수치다.

미국과 중국이 앞다퉀 동남아시아에 대

한 투자를 늘려간 영향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18~2022년 5년간 동남아에 대한 공장 건설 등 설비 투자 규모를 집계했을 때 미국과 중국이 각각 743억 달러, 685억 달러로 1·2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서 반도체 관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은 태국 전기차 공장 건설, 인도네시아 광산 개발 등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당시 "베트남은 반도체 공급망의 다양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망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마벨테크놀로지, 시놉시스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의지를 내비쳤다. 세계 2위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미국 엠코테크놀로지는 16억 달러를 투자해 지난달 베트남 북부 박닌성에 신규 사업장을 준공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7월 중국 자동차 대기업 저장지리홀딩그룹이 서부 페라주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자동차 산업 거점을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태국에서

도 전기차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M&A)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생활용품 대기업인 미국 김벌리클라크는 2020년 동남아계인 소프텍스인도네시아를 12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은 지금까지 싱가포르 온라인 쇼핑 업체 라자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미국과 중국 기업이 동남아 투자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는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있다. 미국은 최근 공급망을 중국에서 동맹·우방국으로 이전하는 '프렌드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제3국으로 공장 등을 이전해 미국과 유럽 등으로의 수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특히 동남아의 경우 제조업이 밀집한 중국과 거리가 가까워 공급망 재구축에 유리

하다는 점이 투자 유인 요소가 됐다. 정치와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했다. 6억 명 이상의 인구가 만들어내는 내수 수요 또한 매력적이다.

이소노 이쿠모 동아시아세안경제연구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동남아가 '중립지역'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을 놓고 '눈치전'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달 보반 트엉 베트남 주석을 만나 "전통적 우호 관계라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외교 관계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하는 등 관계 강화에 나선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변호선 기자 hsbyun@



"3일마다 여성 살해사건"... 분노한 이탈리아

이탈리아 로마 유적지 콜로세움에서 25일(현지시간) 유엔의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여성 안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22세의 여대생 줄리아 체켄틴이 옛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 이탈리아 전역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켜 이날 시위에 많은 시민이 호응했다. 이탈리아는 평균 3일에 1명꼴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되는 '페미사이드(Femicide)'가 일어난다.

로마/AP연합뉴스

## "하이브리드 만만찮네"... 테슬라 vs 도요타 2차전

테슬라 3분기 순익 44% 급감 전기차 성장둔화·파격할인 탓

도요타 하이브리드 전략 강화 가격 안 깎고 판매 20% 늘어

대에 올랐다고 WSJ는 지적했다. 도요타가 강점을 지닌 하이브리드 구매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논쟁은 전기차 승리로 끝난 것으로 보였다. 하이브리드에 집착했던 도요타는 당시만 해도 놀림거리로 전락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순수 전기차에 올인하는 접근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도요타의 인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고 충전의 번거로움이 전기차보다 덜하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관심이 커진 덕분이다. 그 결과 미국 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포함한 도요타의 26개 모델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45만 5000여 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도요타 북미법인 브랜드 책임자인 데이비드 크라이스트는 "자동차 업계 내 전기차에 대한 경고음이 하이브리드를 주류로 이끌었다"며 "이는 하이브리드를 실제로 각성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

간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를 판매할 때 대부분 하이브리드가 매진되면서 더 인기를 끌었다"며 "고객들은 하이브리드로 전환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간 테슬라도 26% 증가한 49만 3500대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했다. 다만 공격적인 할인 정책으로 인해 수익성 상당 부분을 희생해야 했다. 테슬라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 급감하면서 어닝쇼크를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스트래터지비전의 알렉산더 에드워즈 사장은 "테슬라는 도요타 매출을 가져오고 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대폭 낮춰야 했다"며 "반면 도요타는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고 딜러 스스로 판매를 인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머스크 CEO는 오랫동안 하이브리드를 무시해 왔다"며 "반면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기존의 두 배로 늘리고 있고 오늘날 상황은 뒤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이스라엘·하마스 이틀째 인질 교환

한때 구호품 수량 놓고 수시간 대치 이 "추가 석방 땀 하루씩 휴전 연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틀째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면서 양측은 수 시간 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인 인질 13명과 태국인 인질 4명 등 총 17명을 석방했다고 발표했다.

애초 하마스는 외국인 인질 7명 등 20명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보냈다고 밝혔지만,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스라엘은 17명이 도착했다고 알렸다.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확인한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내보냈다. 1차 교환 때 인질 24명과 수감자 39명을 교환한 양측은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둘째 날엔 이스라엘이 약속한 구호 물량을 다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마스가 석방을 연기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수 시간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하마스는 첫날 석방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중 오랜 기간 수감된 자들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만 사항으로 제기했다. 신경전은 다행히 오래가지 않았고 맞

교환도 재개했다.

앞서 양측은 나흘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총 인질 50명과 수감자 150명을 교환하기로 했다. 교환 대상자는 모두 여성과 미성년자이며, 예정대로라면 27일까지 교환은 이어진다. 휴전이 연장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하루 10명의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때마다 휴전도 하루씩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휴전을 중재하는 미국도 이를 바라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휴전 연장도 관련해 현실적인 기회가 있다"며 "이것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아랍 국가들과 함께 이 사태를 늦추고 최대한 빨리 종식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이 나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임무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휴전 연장에 판지를 걸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 "하마스가 다른 국적자는 돌려보냈지만, 미국인 인질은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제 하마스는 더 나은 인질 거래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거래는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머스크 한마디에 '엑스' 광고 잇따라 끊겨

"유대인 공동체가 중요 부추킨다" 음모론 지지 980억원 손실 추정

엑스(X·옛 트위터)가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좌충우돌 행보에 또 막대한 손실을 감내할 위기에 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내부 문서를 인용해 엑스가 광고 수익에서 연말까지 최대 7500만 달러(약 980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달 머스크 CEO가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지지한 이후 수십 개의 주요 브랜드가 마케팅 캠페인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에어비엔비, 아마존,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MS), 넷플릭스 등 200개 이상의 기업이 기관이 해당 플랫폼에서 광고를 이미 끊었거나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는 성명에서 "손실 위험에 처한 광고 수익 규모는 1100만 달러 정도"라며 "정확한 수치는 일부 광고주가 돌아오고 다른 광고주가 지출을 늘리면 서 변동됐다"고 밝혔다.

앞서 머스크 CEO는 15일 X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자신들에 대한 중요성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백인들에 대해 그러한 중요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시물에 "당신은 실제 진실을 말했다"고 동조해 역풍을 맞았다.

변호선 기자 hsbyun@

# 햄버거 이어 레저·로봇 ‘진두지휘’… ‘한화 샷별’ 김동선

〈파이브가이즈〉

## 오너 3세… “미래먹거리 발굴”

아태지역 점포중 최고 매출 기록  
향후 5년내 15호점 오픈 계획  
로봇 이용 ‘푸드 테크’ 사업 박차  
‘트라이앵글 경영’ 성과 가시화  
그룹 내 직함만 3개… 역할 확대  
재계 “金, 그룹 내 입지 커질 것”

한화그룹 오너 3세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부사장)은 현재 그룹 내 공식 직함만 3개다.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 한화로보틱스 전략담당 임원이기도 하다. 역할이 많아진 만큼, 그룹 내에서 조용히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1989년생인 김 부사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큰형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둘째형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과 달리 국가대표 승마선수 활동 등으로 그룹 경영에 다소 늦게 합류했다. 2016년 한화건설 신성장전략팀장을 시작으로 면세점 태스크포스(TF) 팀원으로 합류, 시내면세점 사업에 나섰으나 주한미군사드(THAAD) 논란 등 대외적 악재로 결국 사업을 접었다. 이후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를 거쳐 2021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프리미엄레저그룹장(상무)을 맡으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전략본부장(전무)로 승진한 데 이어 지난달 정기 임원인사에서 한화갤러리아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으로 연속 승진했다. 동시에 한화로보틱스의 전략담당 임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유통·서비스 부문인 한화갤러리아와 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까지 3개사의 미래 신사업을 사실상 이끌게 됐다.



김동선(오른쪽)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과 윌리엄 피처 파이브가이즈 인터내셔널 총괄 부사장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갤러리아

### ◇유통·레저·로봇 분야 ‘트라이앵글 경영’ 속도

김 부사장은 유통·호텔·로봇 분야 ‘트라이앵글 경영’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쓰고 있다. 올해 그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미국 3대 햄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의 국내 론칭이다. 올 6월 서울 강남대로에 문을 연 파이브가이즈 1호점은 하루 평균 1800~2000명이 찾을 만큼 인기를 끌며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점포중 최고 매출을 기록 중이다. 파이브가이즈는 1호점에 이어 10월 여의도 더현대에 2호점을 열었고, 향후 5년 내 15개 점포를 열 계획이다.

김 부사장은 파이브가이즈 도입 기획부터 론칭까지 진두지휘, ‘현장형 오너 3세’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월 파이브가이즈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있는 홍콩에서 직원들과 함께 실습 교육에 참여했고, 강원도 평창의 감자농가를 찾아 식재료 품질과 생산과정도 직접 살폈다. 발로 뛰는 성과는 숫자로 이어졌다. 파이브가이즈 운영법인 에프지코리아(한화갤러리아 자회사)는 올 3분기 35억8000만 원의 매출을 냈다. 이는 6월 오픈한 파이브가이즈 1호점의 매출만 반영한 수치다. 3분기 영업 일수로 환산하면 일평균 약 3900만 원 매출을 올린 셈이다.

레저 부문에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이하 한화리조트)를 중심으로 MZ세대 고객잡기에 나서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최근 강원도 속초 설악 쏘라노에서 열린 ‘워터밤 속초 2023’이 한화리조트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김 부사장이 주도한 이 행사는 박재범, 제시, 그레이 등 슈퍼스타가 총출동해 1만5000명의 관객이 몰렸다. 당시 김 부사장은 행사장을 직접 찾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달라”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MZ세대 대표 여름 축제인 워터밤이 인구 10만 명 이하 소도시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 관객은 주로 20~30, MZ세대로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행사 전후 설악 쏘라노는 전 객실(1500실)이 예약 마감됐고 전통시장 등 인근 명소에도 관광객이 몰려, 약 1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호텔 ‘더 플라자’도 젊어지고 있다. 더 플라자는 올해 5월 지하 1층에 특급호텔 최초 오이스터 바를 열어, 차별화된 캐주얼 다이닝을 선호하는 젊은층 수요에 부응했다. 식음료(F&B) 서비스 개편 후 과거와 달리 젊은 고객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SNS마케팅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유튜브 채널 ‘네고왕’과 3월에 진행한 더 플라자의 할인 프로모션은 1시간만



에 완판됐다. 이런 노력은 실적 개선 성과로 이어졌다. 한화리조트의 3분기 누적 매출은 5954억 원, 영업이익은 2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 96% 증가했다.

### ◇미래 신사업 ‘푸드 테크’ 박차...삼형제 경영 순항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이 신사업으로 접목한 로봇사업도 진두진휘하고 있다. 올 10월 한화는 한화(주) FA사업부 내 협동로봇과 무인운반로봇 등의 사업을 분리, 로봇전문기업 한화로보틱스를 설립했다. 지분은 (주)한화가 68%, 한화리조트가 32% 보유하고 있으며, 김 부사장은 한화로보틱스의 전략담당 임원이다. 한화로보틱스는 관계사인 한화리조트와 함께 푸드테크 등 유통 현장에 로봇 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음식 조리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와 보안 업무 등 사업장 곳곳에 로봇 기술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화로보틱스는 외식산업 주방자동화 서비스 전문기업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와 주방 자동화 로봇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 부사장은 업무 협약에 주도적으로 참여, 한화로보틱스가 처음 개최한 전시부스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김 부사장이 경영 능력을 인정받으며 그룹 내 입지를 키울 것으로 본다. 현재 한화 3세 중 김동관 부회장은 방산·석유화학·신재생에너지에 맡고 있다. 차남 김동원 사장은 금융 부문을 총괄한다. 김 부사장이 책임지는 유통·레저(1.6%) 부문 등은 그룹 내 매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조금씩 형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평가다. 김유연 기자 kyy0907@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기업 여건을 진단하고**  
**맞춤 훈련을 추천해 드립니다**

QR코드 스캔하고  
컨설팅 신청하기 ▶

☎ 1644-8000



기업 맞춤 성장 코칭

**능력개발전담주치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더 나은  
미래를 위해  
2030년 부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 美·中 리스크에 불똥 튄 'K-배터리'... 암초 넘고 질주할까

## 전기차 성장 둔화 '삼중충'

'수주 1000조 원' 시대를 연 국내 배터리 산업이 암초를 만났다.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 등이 겹치며 '삼중충'을 겪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연말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규정하는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25년부터는 FEOC가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까지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가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지분' 제

美 정책 불확실성에 국내사 타격  
중국 흑연 등 핵심광물 통제 강화  
저가 공세 중소기업 점유율도 높아져  
국내 기업 수직계열화 완성 시급

한이다. 8월 발효된 반도체법(칩스법)은 중국 측의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도 FEOC에 포함시켰다. 만약 IRA에서도 이 규정을 따른다면, 중국 기업과 합작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SK온과 예코프로는 지난해 중국 거린 메이(GEM)와 인도네시아에 니켈 중간재 생산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결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전북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 건설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중국 화유코발트는 올해 들어서만 LG 화학,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등과 손을 잡았다. 포스코그룹은 중국 CNGR 등과 함께 1조5000억 원을 들여 경북 포항에 니켈·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기업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투자하며 미국의 IRA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강화된 FEOC 지침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미국발 리스크도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IRA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간 북미 투자를 늘려왔던 국내 배터리 기업으로서 달갑지 않은 움직임이다. 올해 3분기 LG에너지솔루션은 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로 전체 영업이익의 30%에 달하는 2155억 원을 받았다.

배터리 밸류체인(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중국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배터리 등 극저가의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 한국의 중국산 흑연 의존도

는 90%를 웃돈다.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 배터리 업체의 시장 점유율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9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는 CATL(36.8%), 2위는 BYD(15.8%)로 나타났다.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23.8%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자국에 생산시설을 두는 미국의 '온쇼어링' 정책,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규제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자금 부담도 있다"면서 "다만 IRA의 방향성이 쉽게 바뀌진 어렵고, 국내 기업들이 진행하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porlune@

## 빨라진 삼성 인사... 위기에 'JY개혁' 앞당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전자가 조기 인사에 나설 전망이다. 사장단 인사를 앞당겨 인사·조직 개편을 확정 짓고 선제적으로 사업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다. 인사는 이르면 27일 발표될 전망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및 전자 계열사는 지난 24일 사업지원TF를 통해 일부 현직 사장들에게 퇴임 통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일반적으로 매년 12월 초에 최고경영인사를 실시한다. 최근 5년은 2020년 1월 인사 발표가 난 2019년을 제외하면 모두 12월 첫째 주 초에 사장단 인사를 냈다. 사장단 인사 1~2일 뒤에는 부사장급 이하 임원 인사를 진행하고 조직 개편을 확정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미 수개



삼성전자 이르면 오늘 사장단 인사  
이재용 취임 1년·신경영 30년 겹쳐  
인사·조직쇄신 필요성 잇따라 제기  
한중희·경계현에 노태문 3톱 가능성

월 전부터 '조기 인사'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 취임 후 첫 인사인데다 고 이근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신경영 선언 30주년'이 겹치며 적극적인 인사·조직 쇄신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삼성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가 글로벌 업황 등의 영향으로 부진을 겪으며 혁신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관심을 받은 그룹 콘트롤타워는 빨라도 내년 1월 26일 '부당 합병' 1심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 전에는 정현호 부회장 중심의 사업 지원TF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수장인 한중희 부회장, 디바이스솔루션(DS, 반도체) 부문 수장 경계현 사장도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부터 한중희·경계현 대표이사 투톱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DX 산하 모바일(MX) 사업부의 노태문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돼 3인 대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MX 사업부는 최근 갤럭시Z 플립5 등을 통해 프리미엄 폴더블폰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68년생인 노 사장이 한 부회장(1962년생)과 경 사장(1963년생)에 비해 젊어 세대 교체 기조에도 부합한다. 이민재 기자 2mj@



야외전시된 수리온을 관람 중인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가운데) UAE 대통령. 사진제공 한국항공우주산업

## 훈풍 탄 'K-방산' 더 높이 난다 美·중동 등 세일즈 마케팅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신시장 개척  
폴란드 이어 수출선 다변화 총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여파로 수출 물꼬를 튼 K-방산이 추가 수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전 세계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안에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세일즈 마케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화그룹 방산 3형제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은 비롯해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올해 3분기 총 3222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여 시장 전망을 웃도는 성적표를 받았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국제 정세 악화로 주요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무기를 대거 사들이면서 그동안 꾸준히 연구·개발을 유지해온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큰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며 "폴란드와 220억 달러에 달하는 2차 계약이 연내 체결된다면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수주 기록도 경신하게 된다"고 밝혔다.

물론 폴란드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과반을 확보, 정권교체 절차에 들어가면서 무기 체계의 한국 의존도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방산업체들은 수출선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AI는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를 넘어 항공산업 본토인 미국 시장 진출까지 공략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에는 폴란드 바르샤바

에서 중부유럽사무소를 개소,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KAI는 폴란드 중부유럽사무소를 포함해 미국 미주법인, 프랑스 구주 사무소, 페루 중남미사무소, 이집트 아프리카중동사무소, 터키,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 총 8개의 해외법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아프리카의 안보전략 요충지인 이집트와도 FA-5036대 수출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대 100대까지 예상하고 있다. 이집트 공군은 40대의 알파 제트(Alpha Jet) 훈련기뿐 아니라 미라지(Mirage) 등 노후기체를 교체해야 한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기동헬기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 LAH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하고 있다. KAI는 13일부터 17일까지 중동 최대 전시회인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해 셰이크 만수르 빈 모하메드 알 막툼 두바이 왕세자 등 고위 관계자들에게 세일즈를 했다.

세계 최대 전투기 시장인 미국에도 도전한다.

미국 정부는 훈련기 노후화 등으로 미 해군의 전술입문기와 고등훈련기, 미 공군 전술입문기 사업을 합쳐 500여대 규모의 신규 기종을 도입한다. KAI는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수주 경쟁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 규모가 총 50조 원에 육박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중동은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실제로 계약이 체결됐다가 었어진 적도 적지 않아 계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 LG AI연구원·유네스코, AI 윤리의식 강화 '맞손'

유네스코, 국내기업과 첫 협력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가 인공지능(AI)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협력한다.

LG AI연구원은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유네스코와 AI 윤리 실행과 확산을 위한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수현 유네스코 아태지역 사무소장과 배경훈 LG AI연구원장, 김유철 부문장, 김명신 AI 윤리 정책수석 등 LG AI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네스코가 AI 윤리 실행을 위해 국내 기업과 손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유네스코는 2021년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기술 발전과 실행을 위해 193개 회



배경훈(왼쪽) LG AI연구원장이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파크에서 김수현 유네스코(UNESCO) 아태지역사무소장과 AI 윤리 실행과 확산을 위한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LG

원국 만장일치로 첫 국제 표준인 'AI 윤리 권고'를 채택했다.

LG AI연구원도 지난해 AI 윤리원칙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는 'AI 윤리 점검 태스크포스(TF)'와 LG 계열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인 'AI 윤리 워킹 그룹'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AI 윤리 영향 평가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을 보장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공개 온라인 강좌(MOOC)와 AI 윤리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민간과 공공 분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네스코가 AI 윤리 권고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 계획 중인 국제 이벤트 및 포럼 공동 개최, 이니셔티브 개발 논의 등 국제 AI 윤리 활동도 함께한다. 김민서 기자 viajporlune@

## "AI로 무역정보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을"

무협, 디지털 플랫폼 전면 개편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는 국내외 130만 명이 이용하는 무역 디지털 플랫폼 KITA.net을 전면 개편해 27일부터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무역협회의 국영문 홈페이지와 국내·해외 지부 홈페이지의 디자인이 변경되며 정보 검색 기능도 강화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KITA.net의 디지털 플랫폼내 'AI 기반 검색 기능'과 '수

출역량 진단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내외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그동안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포털인 '트레이드 내비'에서 제공되던 '71개국 관세율 조회' 및 '무역 규제 정보'를 KITA.net으로 통합함으로써 무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단일 플랫폼 내에서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민재 기자 2mj@

# “마장동의 선진화... ‘축산 B2B 플랫폼’ 다음달 출시”

## 탐방기UP 푸디버스

### 비프 솔루션 플랫폼 기업

“단절된 공급자와 구매자를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면 전체 시장의 가격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호준 푸디버스 각자 대표는 26일 본지 인터뷰를 통해 “축산 B2B(기업간 거래) 플랫폼을 내달 중 공식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푸디버스는 2012년 설립된 비프 솔루션 플랫폼 기업이다. 소고기를 중심으로 국내 육류 B2B 시장에서 글로벌 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 현지로부터 글로벌 브랜드 원육을 직접 소싱하는 직코드(Direct)를 갖고 있다. 주요 공급사는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사, 커머스 업계 등이다. 올해 750여 개사를 확보했고, 누적 거래치는 1만여 개에 달한다. 10여년 이상 축산 B2B 분야에서 쌓은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육의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구축하고 이익을 극대화해 지난해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영업이익률 5%를 달성했다.

푸디버스의 가장 큰 목표는 축산업으

로 유명한 서울 마장동의 선진화다. 폐쇄적인 성격을 띠는 기존 축산 거래의 관행을 B2B 플랫폼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다. 다음 달 출시를 목표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플랫폼 안에서 원육 수입 및 대형 유통사 등 공급자와 프랜차이즈, 대형 식당, 중소형 유통사 등 구매자가 각각 파트너를 찾고, 최적의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에 국가, 코드, EST, 환율, 부위, 원육 코드 등 축산에 꼭 필요한 구분법으로 분류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며 “견적 생성 및 확인, 발주, 선적 관리의 자동화 기능 등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또 별도 회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영세 기업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 거래처별 손익 분석, 거래명세서 생성 및 전송, 매입 및 매출 분석, 고객 관리에 필요한 CRM 기능 등을 담은 ERP 시스템도 지원할 예정이다.

B2B 유통 전문회사에서 출발한 푸디버스는 최근 B2C(기업 소비자간 거래) 제품 개발과 판매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가정간편식(HMR) 분야 경험

대형 유통사-프랜차이즈·식당  
공급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  
국가·환율·원육코드 등 세부 분류  
원하는 상품 쉽게 찾을 수 있어  
유명 맛집 손잡고 자체 브랜드  
B2C 시장으로 사업 영역 확장



이호준 푸디버스 각자 대표

을 갖춘 이 대표가 지난해 푸디버스에 합류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푸디버스의 전신인 호림마트 창업자 강원호 대표가 B2B 사업을 이끌고, 이 대표는 B2C 사업을 진두지휘한다. 이 대표는 “강 대표는 육류 글로벌 소싱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젊은 감각으로 이 시장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이라며 “제가 가진 B2C 사업의 노하우, DT 노하우를 살려 의기투합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경영전략 수립 전문가인 이 대표는 호텔 셰프 출신 등으로 구성된 제품전략팀, 흡소핑 농수산 MD, 외식 및 HMR MD, 축산물 QA 경험자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판매 채널에 특화된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는 “다양한 부위를 활용한 B2C 제품을 기획·개발·판매하는 것은 더 효율적인 원육 소비 방안을 제시하는 솔루션의 하나”라며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구이류 외 다양한 부위를 활용하고, 가정에서 쉽게 조리하지 못했던 부위 등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푸디버스는 올해부터 자체 브랜드를 내세워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전라남도 담양의 대표 맛집인 남도예담과 손잡고 9월 가정간편식 ‘남도예담 떡갈비’를 출시했다. 추석에는 생육 제품인 ‘호주 청정우 LA갈비세트’, 캠핑 시즌에는 ‘알고리 양념구이’ 등을 선보였다.

B2C 시너지 강화는 수익성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 대표는 “B2B의 경우 수입 대행을 포함해 통상 3~7%의 이익률을 보이나, B2B 원육을 활용해 B2C에 투입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 8~15%의 이익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푸디버스는 시리즈 A 투자 유치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푸디버스는 원육의 안정적인 소싱과 효율적인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통합 비프 솔루션 플랫폼 기업”이라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지난해 20억 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이일영(앞줄 왼쪽 두 번째) 흥앤쇼핑 대표이사가 중국 웨이하이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흥앤쇼핑

## 흥앤쇼핑, 내년 1월 중국직구 전용관 신설

### 웨이하이시와 전자상거래특구 MOU

흥앤쇼핑이 커지는 해외직구 시장을 공략한다. 흥앤쇼핑은 23일 중국 직구 전용매장을 열기 위해 중국 웨이하이시 ‘웨이하이 첨단산업 기술지구 상무국’에서 웨이하이 훗볌하이테크산업단지 관리위원회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흥앤쇼핑이 중국 직구 시장 진출에 나선 것은 거래액의 증가세가 뚜렷해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우리나라의 해외 직구액은 4조792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9800억 원)보다 20.4% 증가했다. 특히 중국은 2조2217억 원으로 점유율 46.4%를 차지했다. 중국 직구액은 전년보다 106% 급증했다.

2018년 7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특구로 지정된 중국 웨이하이시는 약 800개 이커머스 업체, 50만 SKU(재고관리

위한 최소한의 단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거래액은 약 6조 원 규모다. 또 무표면세(부가가치세 비과세), 소득세·통관 편의화 등 다양한 강점이 있는 데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물류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구 물류의 약 85%를 점유한다. 흥앤쇼핑은 이번 MOU를 통해 내년 1월 중 중국 직구 전용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용관이 개설되면 빠른 통관 및 배송을 지원받아 기존 10일 이상 걸리던 배송을 평균 4일 내외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소 및 반품 편의역시 개선해 편리한 직구 전문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 우수중소기업 상품을 중국 웨이하이산업단지를 통해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것도 추진한다.

흥앤쇼핑 관계자는 “중국의 유명 브랜드부터 가성비 상품까지 다양하게 흥앤쇼핑에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한다”며 “내년 1월 오픈할 직구 전용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공공 SW사업’ 대기업 진입문턱 낮춘다

정부가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상호 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 1000억 원 이상보다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클라우드 전환 저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선진화 정책 방향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로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 목적 참여제한 10년만에 제도개선 속도  
올초 ‘1000억 이상 사업 허용’ 검토  
먹통 사태에 기준 더 낮춰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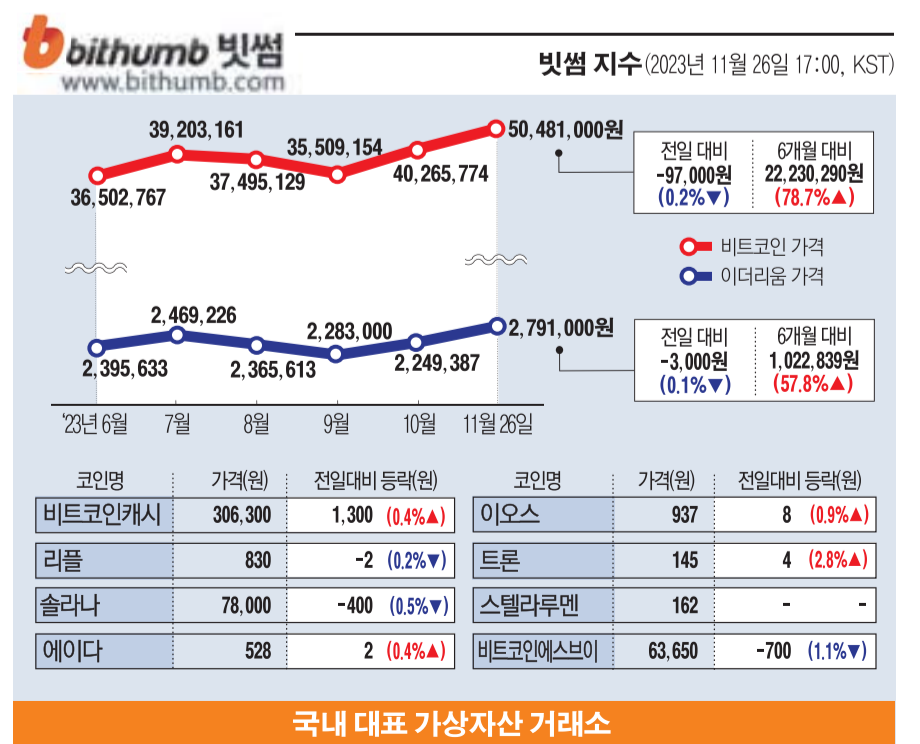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공공 소프트웨어 구축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온 제도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공공 부문 정보통신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SW 사업 참여 제한을 푸는 것이 행정 전산망 사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과업이 너무 자주 변경되면서 품질이 낮아지는 관리 차원의 문제가 더욱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나리 기자 nari34@



# 집값 약세장 발 들었는데... 서울 외곽지역 갭투자 몰렸다

최근 3개월 갭투자 거래 상위 노원·성북·관악·강서·구로 등 서울 외곽 자치구 다수 차지

전셋값 많이 오른 중소형 집중 전문가 “매맷값 상승세 꺾여 역전세 문제 다시 발생할 수도”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몰리고 있다.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더 오르면서 갭(매맷값과 전셋값 차이)이 축소되자 적은 자기자본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상승세 둔화와 주택 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9월 1일 이후)간 서울 내 자치구 가운데 갭투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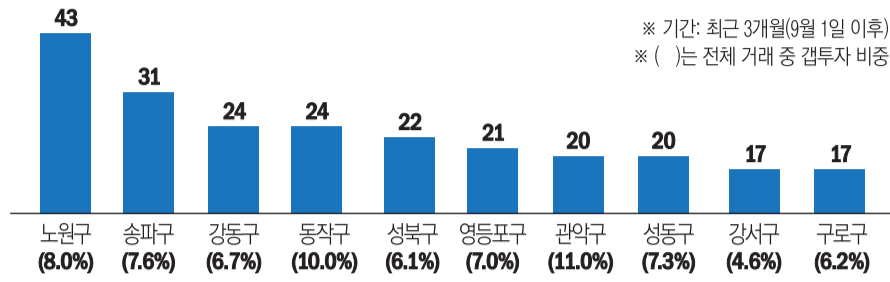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로 총 43건의 거래가 있었다.

갭투자 건수 상위 10곳은 송파구(31건)와 강동구(24건) 등 강남지역도 포함됐지만, 성북구(22건), 관악구(20건), 강서구(17건), 구로구(17건) 등 외곽지역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전체 거래 중 갭투자 비중은 관악구 11.0%, 동작구 10.0%, 노원구 8.0% 등으로 송파구(7.6%)와 강동구(6.7%)보다 높았다. 서울 아파트 갭투자자들이 서울 외곽지역을 주로 사들인 것이다. 동 단위로 보면 관악구는 봉천동(16건), 노원구는 중계동(15건)과 상계동(14건), 영등포구는 신길동(6건)에 갭투자가 몰렸다.

갭투자는 중소형 평형 중 전셋값이 많이 오른 곳에 집중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동 ‘롯데’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16일 5억 78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보증금 5억 1000만 원에 전세 계약서

서울 아파트 갭투자 상위 지역 (단위: 건)



\* 출처: 아파트실거래가 앱  
\* 기간: 최근 3개월(9월 1일 이후)  
\* ( )는 전체 거래 중 갭투자 비중

를 썼다. 갭은 6800만 원이다.

노원구 상계동에선 ‘상계대림’ 전용 83㎡형이 17일 5억 원에 매매된 이후 닷새만인 22일 전세 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갭은 1억 5000만 원이다. 관악구 봉천동에선 ‘관악푸르지오’ 전용 59형이 지난달 6일 매매가 7억 원에 계약 체결된 후 같은 달 19일 전세 5억 원에 계약을 맺었다.

이렇듯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이어지는 것은 매맷값 대비 상승세가 더 가파른 전셋값 움직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전셋값이 빠르게 올라 매매를 위한 자본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로서 전세를 끼고 사들이겠다는 심리가 강한 것으로 본다”며 “또 최근 들어 정책 대출 등이 어려워져 직접 대출 대신 전세금을 활용해 일당 매매에 나서는 비율도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집값 상승세 둔화가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산하는 만큼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값 동향에 따

르면,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 변동률은 0.03% 상승으로 전주 대비 0.02% 포인트(p) 낮아졌다. 집값 상승세는 6주 연속 이어졌지만, 상승 폭은 매주 줄어드는 모양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7% 올라 매매보다 강세를 보였다.

갭투자는 보통 집값 상승기에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한 매수법이다.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집값이 상승하면 매도해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집값 하락 시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윤 위원은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전세 가을(매맷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50% 정도로 극단적인 하락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지만, 매맷값 상승세가 꺾인 만큼 역전세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처럼 전셋값 상승세가 더 확대되면 지금보다 서울 내 갭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청계리버뷰자이, 분양가가 흥행 판가름”

내달 797가구 일반물량 풀려 강남·여의도 접근성 최대 강점 “3.3㎡당 4500만원 넘으면 50% 이상 미분양 나올 수도”



내달 분양하는 청계리버뷰자이 투수도. 14개 동 총 1670가구 중 79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사진제공 GS건설

다음달 분양을 앞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에 예비 청약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내 서울 분양단지 중 최대 규모의 일반분양 물량이 풀리는 데다, 강남·여의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자의 눈높이를 크게 웃도는 고분양가가 흥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청계리버뷰자이는 다음달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GS건설이 시공하며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총 167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7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59㎡A 257가구 △59㎡B 66가구 △59㎡C 36가구 △73㎡ 292가구 △78㎡ 142가구 △84㎡ 4가구가 공급된다. ‘국민 평형’인 전용

84㎡ 물량은 적지만, 중형 물량이다 수 풀린다. 입주는 2026년 예정이다.

분양가는 평당 4000만~4500만 원 선으로 예상된다. 앞서 연접한 곳에 분양한 ‘청계SK뷰’는 평당 3764만 원, 전용면적별 최고가는 59㎡ 9억 6990만 원, 84㎡ 13억 4200만 원으로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다만 총 396가구 모집에 1만여 개의 통장이 접수돼 평균 1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에 따라 흥행 여부가 갈릴 것이라 전망을 내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주력 평형인 전용 59㎡ 분양가는 10억~11억 원 정도가 적당하고, 평당가가 4500만 원을 넘으면 비싸기 때문에 미분양이 50% 이상 나올 것”이라며 “분양가 경쟁력만 확보한다면 청계 SK뷰, 이문

아이파크 자이와 비슷한 수준인 1만 개 이상의 청약 통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현재 해당 평형의 주변 시세는 10억 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 단지와의 가까운 ‘힐스테이트 청계’ 전용 59㎡는 10월 10억 1000만 원에 거래됐고, ‘답십리 래미안위브’ 동일 평형은 9억 9500만 원에 손바뀜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청계SK뷰가 분양했던 8월은 시장 분위기가 좋았지만, 지금은 위축됐기 때문에 청계SK뷰를 넘을 만큼 높은 경쟁률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평당 분양가 4000만 원 선이면 비싸지만, 소화 못 할 정도는 아니고, 미계약이 소량 나오더라도 결국 완판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 금주의 분양캘린더

1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477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4774가구(일반분양 2574가구)가 분양한다.

인천 중구 ‘운서역대리수어썸에듀’와 대전 서구 ‘도마포레나해모로’, 부산 남구 ‘해링턴마레’ 등은 28일 정약을 진행한다.

총 8개 단지에서 청약당첨자를 발표한다. 경기 파주시 ‘운정3제일풍경채’와 부

산 남구 ‘문현푸르지오트레시엘’은 28일 당첨자를 가린다.

계약 진행단계는 총 7곳이다. 서울 도봉구 ‘도봉금호어울림리버파크’와 경기 양주시 ‘회천중앙역대광로제비앙’,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푸르지오클라시엘’은 29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경기 의왕시 ‘의왕센트라인데시앙’은 30일까지 정당계약을 받는다.

견본주택을 여는 곳은 총 3곳이다. 부산 강서구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그랑루체’는 30일, 경기 이천 ‘이천중리우미러반퍼스트’는 12월 1일 견본주택을 연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11/27 (월)	계약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금호어울림리버파크 (~11/29)
		경기	양주시	회정동	회천중앙역대광로제비앙 (~11/29)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푸르지오클라시엘 (~11/29)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더샵의정부역링크시티 (~11/30)
		인천	서구	원당동	e편한세상검단웰카운티 (~12/3)
11/28 (화)	접수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A58(영구임대) (~12/1)
		경기	화성시	비봉면	화성비봉A3(행복주택) (~11/30)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대리수어썸에듀 1순위
		부산	남구	우암동	해링턴마레 1순위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더풀디오션 1순위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포레나해모로 1순위
		전북	임실군	임실읍	임실고운리피너네더퍼스트 1순위
발표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3제일풍경채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푸르지오트레시엘	
	경북	안동시	옥동	위파크안동호반	
	경남	진주시	평거동	진주평거(고령자)국민임대	
	경남	진주시	평거동	진주평거(고령자)스마트청년	
	경남	진주시	평거동	진주평거(고령자)영구임대	
	경기	의왕시	오전동	의왕센트라인데시앙 (~11/30)	
11/29 (수)	접수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대리수어썸에듀 2순위
		부산	남구	우암동	해링턴마레 2순위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더풀디오션 2순위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포레나해모로 2순위
		전북	임실군	임실읍	임실고운리피너네더퍼스트 2순위
11/30 (목)	오픈	인천	서구	원당동	제일풍경채검단IV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산에코델타시티디에트르그랑루체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신읍2(국민임대)
12/1(금)	오픈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신읍2(영구임대)
		경기	이천시	중리동	이천중리우미러반퍼스트
12/3(일)	계약	경남	거제시	아주동	오션월드메리디앙더리치먼트 (~12/5)

(주)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R114

## 서울시, 구로·석관·망우3·목2동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수유·시흥5동은 제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과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목2동 등 4곳이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강북구 수유동과 금천구 시흥5동은 선정되지 못했다.

26일 서울시는 자치구 수시 공보를 신청한 지역에 대해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낡은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이 계속되고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주민들이 오랜기

간 불편을 겪는 지역이다. 반지하 주택도 많이 분포해 있다.

금천구 시흥동 219-1 일원(9만 7824㎡)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진입 도로 확보가 어렵고 사업예정구역 경계가 향후 사업추진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모아타운에 미선정됐다.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은 주거와 상가 밀집지역이 혼재돼 사업 실현성이 떨어져 전반적인 모아타운 구역과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계획 등을 추가 검토·조정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불편, 주거환경 개선을 개선했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 “발빠르게 준비하라”... 은행권 ‘책무구조도’ 막바지 대응

## 속도내는 ‘금융판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편 내년 6월 은행 적용  
사전 시뮬레이션·기준 마련 분주  
오늘 은행장 간담회서 상황 점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속도를 내면서 은행권이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최근 국회 정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은행권이 준비상황 점검에 돌입했다.

2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책무구조도 초안작성에 들어갔다. 일부 은행의 경우 이미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대비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27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고 발의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

**책무구조도 시행 방안** ※출처: 금융위

- 책무구조도**
  -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 책임 의무 명확화
  -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
- 추진경과**
  -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전체회의 본회의 거쳐 최종 통과 예정
- 입권별 적용 규모**
  - 은행: 전체    •지주: 전체    •금융투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종합금융투자사업자
  - 보험: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저축은행: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 직책, 책무 변경시 담당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구분	현행	개선
임원의 자격요건	소극적 결격요건만 열거(사외이사만 적극적 자격요건)	해당 직책별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적극적 자격요건 추가
자격요건 확인	임원의 신규선임 시에만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임원 신규선임뿐 아니라, 임원으로 기선임된 자의 직책 변경 시에도 충족여부 확인

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신해 정무위 원장 대안을 통과시켰다. 연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에 개정법이 적용된다.

책무구조도가 최종국회문턱을 넘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의 사고에 대한 CEO의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비롯해 임원별로 담당하는 내부통제 업무가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다.

은행권은 법 통과에 앞서 이미 자체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모형설계에 함께 참여해 사실상 책무구조도 기준을 당국과 함께 마련한 상황이다. 이번 제도개선이 처벌 강화보다는 자율성에 초점을 둔 만큼 책무구조도 세부내용에서도 이같은 점이 대거 반영됐다.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시행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신한금융에 맡겼다. 신한금융은 내부적으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금융당국에게 전달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반발을 고려해 세부안 강도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KB금융지주와 함께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및 지배구조법 개정 이슈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 설명회 등을 운영했다. 현재 내부통제제도개선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향후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 구성 등을 통해 경영진과 직원 스스로가 ‘내부통제 주체’라는 인식변화를 위해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TFT구성 및 컨설팅업체를 선정해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현재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받으며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 중이며 관련 법이 시행되는 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도 책무구조도 도입 일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1단계, 보험은 2단계, 여신업권은 3단계로 적용 시점이 다르다. 보험의 경우 2025년 이후 적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단계로 적용되는 은행도 아직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상황을 봐가면서 준비 단계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법안 통과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한창이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라며 “법안 통과에 맞춰 도입 시점과 법적 근거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도 책무구조도 사전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 100회 맞은 여승주의 끝장 ‘노마드 회의’... 한화생명 ‘新바람’

〈한화생명 부회장〉

## 전속설계사 보험서 법인 대리점 변신 시장지배력·미래 성장성 인정받아

“유연하게 변화하는 유목민처럼 빠르게 업계를 선도합니다.”

여승주(사진) 한화생명 부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2019년 3월 25일, 본사 영업·상품개발·리스크·보험심사 등 주요 팀장 6명이 대표이사실에 모였다. 이날이 한화생명만이 가진 변화와 혁신의 끝장토론의 장 ‘노마드(NOMAD) 회의’의 시작이었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보험업의 틀을 깨자는 의미로 여 부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Break the frame)’를 선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 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업계에서 전혀 도전하지 않았던 주제와 현안들을 끌어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속설계사 중심의 보험영업에서 탈피해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의 변신을 주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상품 판매, 고객서비스 제고, 설계사 활동량 및 소득 증대, 영업 경쟁력 확보

통한 시장 우위 등의 효과를 얻었다. 그 결과 올해 격변하는 보험영업 시장에서 한화생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년 8개월간 격주로 이뤄진 이 회의가 24일을 기해 100회를 맞았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시기에도 화상회의로 토론은 계속됐고, 100회까지 총 340여 개의 의제를 다뤘다.

2021년 4월 재판부리 후에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영업 이슈를 회의안건으로 올려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사일로(silo)를 해소했다. 그 결과, 출범 약 2년여

만에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기준 순이익 379억 원을 시현하며 업계 판도를 바꿨다. 대형 GA ‘피플라이프 인슈’, 한국투자PE로부터 1000억 원 투자 유치 등 대외에서도 시장지배력과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여 부회장의 ‘상품 하나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노마드 회의의 가장 큰 중심이었다. 이를 통해 치매보험, 간편건강보험, 수술비보험, 암보험 등 누적 초회보험료 100억 원 이상의 히트 상품을 지속해서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서지연 기자 sjy@

〈기업 PR〉

##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일석삼조 재테크 ‘주목’

### 보험차익 비과세·해외 분산투자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 소비자에게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다양한 국내외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까지 동시에 가능하며, 변액보험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해외 분산 투자’ 원칙과 ‘중장기적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에 의해 변액펀드 75.1%(올해 3분기 기준)를 해외에 투자한다. 위대한 미래에셋생명 변액운용본부장은 “변액보험은 보장과 투자, 비과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재테크 상품”이라며 “변액보험 상품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글로벌 우량자산에 합리적으로 투자해 행복한 은퇴설계를 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희망 은퇴나이 65세지만 실제론 55세 은퇴

### 노후 필요 생활비 月369만원... 212만원 조달 가능

**국민銀, 남녀3000명 설문조사**  
노후 최소생활비는 月251만원

한국인들의 희망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지만,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평균 55세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에 한 달에 369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중 조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금액(조달가능생활비)은 212만 원에 그쳤다.

26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3KB골드라이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3~27일 전국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52.5%에 달했다. ‘노후생활 대비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 가구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건강’(35.7%)과 ‘경제력’

**희망 은퇴 나이와 실제 은퇴 나이**  
(단위: 세, 2023년 기준)

(30.1%)을 꼽았다. ‘노후 거주지 선택과 관련한 니즈’에서는 은퇴 전 가구의 경우 노후 거주지의 주요 인프라로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꼽은 반면(65.7%), 실제로 은퇴한 은퇴 후 가구는 ‘은퇴 전 거주지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42.6%) 나타났다.

노후에 기본적인 인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인 ‘최소생활비’로는 월 251만 원을 고려했다. 반면,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 여행, 여가 활동, 손자녀 용돈

**노후 매달 최소생활비와 적정 생활비 차이**(단위: 만원, 2023년 기준)  
※ 적정생활비 대비 최소생활비 비중: 68.1%

등을 줄 수 있는 ‘적정생활비’로는 월 369만 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재 가구가 가진 소득과 지출, 저축 여력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노후생활비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은 월 212만 원으로 나타나 최소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령자가 이제까지 살아온 지역 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는 ‘에이징 인플레이스(Aging In Place)’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6.2%가 동의했다.

이재영 기자 ijy0403@



## 신한라이프 콜센터 고객 만족도 ‘업’

### 해약 전문상담·녹취부활 큰 반향

신한라이프의 해약 전문 상담과 녹취부활 서비스가 높은 고객 만족도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8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콜센터 내 가치제고실을 신설했다. 가치제고실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 최우선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이 곳에서는 △해약 전문상담 △녹취 부활 서비스 등 계약 유지 활동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에는 문자와 안내장 등을 통해 고객 안내가 진행되지만 가치제고실에서는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세한 상품 안내와 고객불만사항 확인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매월 해약을 요청했던 고객 중 약 45%가 전문상담사들의 충분한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녹취 부활 서비스도 인기가

가치제고실을 책임지는 총괄자는 김근해 고객컨택트운영팀장. 김팀장은 기존 상담 업무 프로세스 개선 외에도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문상담 분야의 특화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신한라이프는 5월 고객 비대면 접점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품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평가하는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19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된 바 있다. 서지연 기자 sjy@

# 치솟던 유가 다시 약세... 원유 ETF·ETN 투자자 '비명'

중동리스크 예상보다 작은데다  
美침체 영향에 유가 두달 만에 ↓  
ETF 10%대·ETN 30%대 '뚝'  
하락 베팅 인버스 일제히 상승

치솟던 글로벌 유가가 재차 약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원유 관련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에 베팅한 투자자들의 낮빛이 어두워지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월 이후 국내 ETF 시장에서 'S&P GSCI Crude Oil Index ER' 지수를 추종하는 TIGER 원유 선물Enhanced ETF는 14.55% 내렸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WTI 원유 선물ETF는 14.26% 하락했다.

원유 관련 고위험 ETN 상품에 베팅한 투자자들도 우울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 10월 이후 'DJCI Crude Oil 2X Leverage TR' 지수를 추종하는 하나 S&P 레버리지 WTI 원유선물 ETN은

10월 이후 원유 ETF·ETN 등락률 (단위: %)

\* 출처: 한국거래소

↓ 하락 종목	등락률	↑ 상승 종목	등락률
TIGER 원유선물Enhanced(H) ETF	-14.55	KODEX WTI원유선물인버스(H)	13.96
KODEX WTI원유선물(H) ETF	-14.26	TIGER 원유선물인버스(H)	13.11
하나 S&P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31.87	QV 인버스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28.57
삼성 블룸버그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31.20	메리츠 블룸버그 인버스 2X WTI선물 ETN(H)	28.13
한투 블룸버그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31.20	신한 인버스 2X WTI원유 선물 ETN(H)	26.67
신한 블룸버그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31.15	미래에셋 인버스 2X 원유선물혼합 ETN(H)	24.43
QV 블룸버그 2X WTI원유선물 ETN	-31.07	삼성 블룸버그 인버스 2X WTI원유 선물 ETN	24.23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30.77	신한 블룸버그 인버스 2X WTI원유 선물 ETN	24.17

31.87% 하락했다.

이 밖에 삼성 블룸버그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31.20%), 한투 블룸버그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31.20%), 신한 블룸버그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31.15%), QV 블룸버그 2X WTI원유선물 ETN(-31.07%), 삼성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30.77%) 등 원유 관련 ETN 상품들도 일제히 추락 중이다.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던 글로벌 유가가 다시 추락하며 두달여만에 분위기가 역전된 여파다. 23일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

유(WTI) 선물 가격은 1.04% 내린 배럴 당 76.30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9월 27일 고점 93.68달러 대비 두달여 만에 18.6% 하락한 수치다.

반면 글로벌 원유 가격 하락에 베팅한 인버스 상품 투자자들은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10월 이후 KODEX WTI원유선물 인버스 ETF는 13.96% 올랐다. TIGER 원유선물인버스ETN도 13.11% 상승했다.

QV인버스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28.57%), 메리츠 블룸버그 인버스 2X

WTI 선물(28.13%), 신한 인버스 2X WTI원유 선물(26.67%) 등 ETN 인버스 상품도 일제히 올랐다.

중동발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다,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 우위상태가 둔화되면서 국제유가의 하락 가능성이 커진 여파로 풀이된다. 석유수출기구(OPEC) 플러스(+) 정책 회의가 연기되면서 내년 추가감산이 없을 거란 예상도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미국의 경기 위축 우려로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지난 10월 7일 발발한 이후 주식 시장에서는 원자재 급등 및 확전 리스크가 잔존해 왔으나 예상 밖으로 원자재 시장은 차분했다. 지난 15일

(현지시간) 이란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하마스 측에 밝히면서 확전 우려가 뚜렷하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리스크 부각 이후 국제유가는 4분기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수요감소 전망으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겨울철에 비수기로 하락하는 계절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래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애초에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으로 유가 부양이 아닌 하방 압력 저지에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OPEC+의 추가감산 결정이 아닌 일부 국가들의 희생 여부에 달려있다"며 "다만 문제는 모두가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 '공매도 톱10' 평균 1706억 손실

'에코 형제' 공매도 1.5조 손해  
공매도 수요, 주식 선물로 이동

2021년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3년간 공매도 투자자들의 평균 손실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를 이용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시장의 예상이 뒤집힌 것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대신 개별주식 선물시장에 몰려들자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개별주식선물가격의 비정상적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26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 비율 상위 10개 종목(호텔신라·엘앤에프·HLB·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에스티큐브·박셀바이오·다원시스·롯데관광개발·후성)의 2021년 5월부터 이달 20일까지 평균 실현손익은 마이너스(-) 1706억 원으로 집계됐다. 8개 종목에서 수익이 발생했지만 수익폭이 크지 않았던 반면, 에코프로(-7587억 원), 에코프로비엠(-8330억 원)에서 대폭 손실을 냈다.

상반기 이차전지 열풍으로 에코형제들이 큰 폭 상승한 탓이다. 이론상 공매도를 통해 낼 수 있는 수익은 최대 100%인 반면, 손실은 무한하다. 예를 들어 공매도 비중이 2위인 엘앤에프는 상반기 주가가 두 배가량 급등해 30만 원대로 올라서자, 공

매도 손익은 플러스(+)에서 -2200억 원대로 급락했다. 반면 8월 들어 이차전지 조정이 시작되기도 누적손익은 1500억 원대를 넘기지 못했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포지션은 이익이 증가하지만, 주가 상승 시 손실이 빠르게 확대된다"며 "한 두 종목의 실패가 전체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거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공매도 수요가 개별주식 선물 시장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선물 매도로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가 늘어난 반면, 현물과 선물 가격차를 좁히는 헷지(Hedge)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선물가격이 이론가를 크게 밑돌면 선물 매수와 주식 매도로 차익 거래를 하면서 현물 가격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로 인해 이런 차익 거래에 제한이 생기면서 시장 평균 베이스(현물물가차)의 괴리율이 -3%를 넘어서는 종목이 발생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유동성 공급자 등 시장조성자들도 적극적으로 차익거래에 나서지 않으면서 개별주식선물 시장에서 가격 괴리가 벌어지는 비정상적 현상이 자주 관찰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희인 기자 hihello@

## 파두 논란에... 금감원, IPO 심사체계 정비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두 사태 등으로 불거진 기업공개(IPO) 관련 신뢰성 논란 등과 관련해 심사체계를 고도화하고, 주권사의 업무체계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5개 상장주관 증권사,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상장 직후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IPO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

욱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주권사의 프로세스도 더욱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거래소와 금감원 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IPO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누락하는 등 고의로 투자자를 기만해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금감원 조사역량을 총동원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불거진 파두 상장 논란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백민규 기자 pmk8989@

KB금융그룹 |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나의 반쪽을 위한 KB금쪽같은 펫보험

내 발소리만 들려도 현관에 코를 박고  
하루 온종일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나의 반쪽인 너를 평생 지켜주고 싶으니까

아프지 않게, 고생하지 않게  
항상 든든하게 지켜줄게

**1** 반려동물치료비 (특약)

**2** 무지개다리유로금 (사망)(특약)

**3** 반려동물양육자금 I, II (일반상해사망, 질병사망)(특약)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인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 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의 심의필 제87277호(2023.06.05~2024.06.04)

**KB 손해보험**

# 300종 직접 골라담는 'K-빵 문화'... '美 1000호점 꿈' 성큼

## K푸드 미국 성공 방정식

### ⑤ SPC 파리바게뜨

이달 기준 30개주 150개 매장  
상반기 미국법인 첫 흑자 달성  
다양한 입맛 맞춰 품목 늘리고  
내 손으로 가져오는 구매법 인기  
"개인 취향 존중 현지문화 공략"

SPC그룹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빵이 주식인 미국 시장에서 까다로운 현지인들의 입맛 공략에 성공했다. 한 매장에서 300종 이상 품목을 판매하는 '다양화' 전략이 통한 덕이다. 파리바게뜨는 기세를 몰아 2030년까지 북미 시장에서 1000개 매장을 운영한다는 목표다. 이미 그 비전은 꿈이 아닌 현실인 상황이다.

26일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 파리바게뜨 미국 진출 개요

매장 수	30개 주(州) 150개(2023년 11월 현재)
첫 매장	2005년
주요 지역	LA·뉴욕·샌디에이고
목표	2030년 1000호점

\*출처: SPC그룹



는 이달 기준 미국 30개 주(州)에서 150개 매장을 열었다. 2005년 미국에 첫 매장을 열었는데 지난해 상반기 100호점을 돌파했고, 1년여가 지난 지금 50개 매장을 더 늘린 것이다.

파리바게뜨 매장은 미국 곳곳에 널리 퍼져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벨리 인근 주요 지역을 비롯해 한인들이 많은 로스앤젤레스(LA)와 샌디에이고, 라스베이거스 등 서부 지역에서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사업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뉴욕, 뉴저지, 보스턴 등을 잇는

동부 거점과 플로리다, 캔자스, 오하이오, 미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신규 지역에도 꾸준히 점포를 내고 있다.

SPC그룹은 향후 신규 진출할 지역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메릴랜드, 워싱턴, 하와이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미국에 1000여개까지 매장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매장 수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파리바게뜨 미국법인은 진출 후 첫 흑자를 냈다. 미국 내 가맹점 비율도 약 85%로 안정적 궤도다. 가맹사업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현지 시장에 브랜드가 확고히 자리를

잡아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방증이다.

미국 진출 초기엔 한국식 베이커리의 현지 성공 여부에 대해 시장의 우려도 컸다. 미국의 경우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까다롭고 경쟁자도 많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파리바게뜨도 진출 초기엔 다소 고전을 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미국 베이커리 시장의 문을 꾸준히 두드린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었다.

미국 시장에서 파리바게뜨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다양한 품목'이다. 현지 타 브랜드 베이커리의 경우 100종 안팎의 빵을 판매하는 반면 파리바게뜨는 300종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

미국은 인종과 출신 국가가 다양한 만큼, 품목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전략이 통한 것이다. 일례로 오피스타운과 상가가 밀집된 뉴욕 맨해튼 매장에서는 크루아상, 치즈케이크, 햄치즈페이스트리 등 직장인의 식사대용 제품이 가장 인기가 높다. 이와 함께 한국식인 단팻빵, 파베기도 닛, 슈크림빵, 찹쌀도넛도 잘 팔린다.

또 다른 인기 요인은 고객이 스스로 정반과 집계를 이용해 빵을 직접 고르는 파리바게뜨 특유의 피킹(Picking) 방식이 꼽힌다. 이는 한국에서는 이미 익숙한 빵 구매법이지만 미국인에게는 새롭게 다가갔다. 미국 베이커리에서는 줄을 서서 매장 직원에게 원하는 빵을 요청하면 포장해주는 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리바게뜨에선 고객이 빵을 구매하기 전 제품을 자세히 관찰하거나, 네임태그(Name Tag)를 통해 내용물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여유롭게 빵을 선택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개인의 취향을 중요시하는 현지 문화에 잘 맞아 떨어진 운영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는 미국 시장의 성공을 발판 삼아 동남아와 중동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세계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19억 명의 무슬림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며, 2030년까지 동남아 시장에 600개 이상 점포를 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ijy42@

## 쿠팡 첫 연간흑자 코앞인데... 발목 잡는 '신사업'

3분기 매출 1년새 18% 올랐지만  
신사업부문 손실규모 255% 늘어  
작년 4월부터 주가 20% 밀돌아

첫 연간 흑자 달성을 목전에 둔 쿠팡이 고민에 빠져 있다.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대만 사업 등 신사업 부문이 수익성을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매출, 5개 분기 연속 흑자 등 호실적에도 주가 반등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26일 쿠팡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8조 1028억 원(분기 평균 환율 1310.39 적용)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 늘어난 1146억 원이었다. 이로써 쿠팡은 작년 3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사상 첫 연간 흑자도 확정적이다.

다만 쿠팡의 3분기 주당순이익(EPS)은 0.5달러로, 시장 전망치(0.7달러)보다 낮다. 쿠팡의 주당순이익 하락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대만 사업 등 신사업 부문이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쿠팡의 신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2850억 원(2억 1752만 달러)을 기록했다. 다만 신사업 부문의 조정 예비타(Adjusted EBITDA)는 2107억 원(1억 6082만 달러)의 손실을 냈다. 작년 3분기(593억 원)와 비교하면 손실 규모가 약 255% 늘었다.

특히 쿠팡의 신사업 부문은 주력 사업인 커머스 부문의 수익까지 낮추는 형국이다. 올 1~3분기 쿠팡 신사업 부문의 누적 손실은 4136억 원(3억 1565만 달러)이다.

같은 기간 쿠팡의 커머스 부문의 이익이 1조 4355억 원인 것에 대입하면, 부진한 신사업이 커머스 이익의 약 30%를 깎아먹은 셈이다.

현재 쿠팡은 공격적인 쿠팡이츠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유료 멤버십인 쿠팡와우 회원에게 쿠팡이츠의 음식값을 최대 10% 할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쿠팡이츠 이용자 이탈을 막고 신규 회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이츠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0

월 기준 433만 496명을 달성해 역대 최고치로, 배달업계 2위 요기요(573만 2281명)를 맹추격하고 있다. 작년 이맘때 진출한 대만 시장도 적극 공략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한국 로켓배송 출시 첫 1년보다 대만 첫째 성장속도가 빠르다"면서 "현 추세대로라면 쿠팡앱은 올해 대만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럼에도 쿠팡의 주가 상승은 지지부진하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쿠팡의 주가는 24일(현지 시간) 전일 대비 0.06% 오른 16.26달러로 장 마감했다.

특히 3분기 실적 발표 직후인 7일(현지 시간) 시간외 거래 당시 주가는 증가 대비 7.32% 하락, 주당 15.82달러까지 떨어졌다. 사상 최대 매출, 5개 분기 연속 흑자 등 호실적도 쿠팡의 주가를 반등시키지 못했다.

쿠팡의 주가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20달러 아래에 머물고 있다. 이는 상장 당시 공모가(35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유승호 기자 peter@



'코오롱 50주년 팝업' 신세계에서 만나오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최초의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의 50주년 팝업스토어를 30일까지 강남점 8층에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팝업스토어는 코오롱스포츠의 50년을 돌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 콘텐트로 구성됐으며 50주년 한정 상품도 선보인다. 대표 한정 상품은 점퍼와 조끼로 활용 가능한 헤스티아다운점퍼, 캠핑 체어, 로키 캠프캡 등이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 "립케어도 프리미엄"... LG생건 '립세린' 출시

'입술 5대 고민' 관리 3세대 제품  
더후·숨37·오후 총 3종 출시

LG생활건강이 강력한 보습 효과로 '동안 입술'을 완성할 수 있는 럭셔리 립세린 3종을 선보였다. <사진>

26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립세린은 입술 피부의 5대 고민인 각질, 주름, 보습, 탄력, 윤기를 관리하는 3세대 기능성 립케어다. 휴대성과 사용성, 기능성을 최적화해, 최근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더히 스트리 오브 후(더후)·숨37·오후에서 잇따라 립세린을 선보였다.

우선 더후는 순도 99.5%의 순금과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E를 함유한 더후 로얄 에센셜 골든 립세린을 출시했다. 로얄 에센셜 골든 립세린은 궁중 비방 공진비단 성분을 기본으로, 궁중 보석인 금, 진주, 호박을 함유해 영양과 탄력을 동시에 관리하고 생기 있는 입술을 선사한다.

숨37은 외부 노출로 지친 입술을 진정시키고 대자연의 에너지로 건강함을 채



워주는 '스킨·스테이 모이스처 립세린'을 선보였다. 만개한 꽃잎을 연상시키는 반투명한 핑크 빛 젤 타입의 제형이 입술 피부에 스며들 듯 녹아 즉각적인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 오후의 '미라클 모이스처 립세린'은 강력한 보습 효과로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고 광채를 살려주는 제품이다. 보습에 특화된 오후 미라클 모이스처 라인에서 나온 첫 번째 립케어로, 입술 보습력 개선에 집중했다.

LG생활건강은 모든 립세린에 에어핏(Air-Fit) 용기를 적용했다. 에어핏은 립세린의 성분 오염을 방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사용감을 유지해준다.

문현호 기자 m2h@

## BTS·세븐틴·투바투 모여라... 롯데백·롯데온서 '하이브 블프'

인기 아티스트 관련 상품 600여종  
다음달 10일까지 최대 70% 할인

롯데백화점이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 '하이브'와 손잡고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이브는 2021년부터 매년 아티스트 공식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블랙프라이데이(이하 하이브 블프) 행사를 열어왔다. 그동안 커머스 플랫폼인 '위버스샵

(Weverse Shop)'에서만 하이브 블프 행사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외부 채널인 롯데백화점몰과 롯데온에서도 선보인다.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총 600여종의 인기 아티스트 관련 상품들을 최대 70% 할인가로 판매한다. '방탄소년단'과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의 로고나 일러스트 등이 담긴 의류, 가방, 액세서리, 문구 등을 일괄 70% 할인한다.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및 팬미팅 현장이 담긴 DVD 등의 영상출판물도 50

~70% 할인가로 판매한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클래식 버레이션 상품도 단독 재출시한다. 2021년 출시한 'BTS X 맥도날드' 클래식 버레이션 티셔츠와 양말, 키링 등을 특별히 선보인다.

구매 고객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행사 기간 중 롯데백화점몰과 롯데온에서 하이브 블프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5% 상당의 엘포인트(L.POINT)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김유연 기자 kyy0907@

# 잇단 전산망 먹통, 국가재난... 디지털 정부 총체적 부실

마비-복구 반복... 원인 못 찾아  
“L4스위치 교체... 라우터 문제”

‘정부 박람회’서 부스 운영 차질  
“HW뿐 아니라 SW 문제 살피고  
시스템 내부 관리체계 보완해야”

**최근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발생 일지**

- 11월 17일, 시도 새을행정시스템, 정부24 마비  
→ 사흘만인 19일 복구
- 22일, 주민등록시스템 일시 장애  
→ 20분만인 오후 12시 5분께 정상화
- 23일, 나라장터 불통  
→ 약 1시간만인 오전 10시 21분 이후 정상화
- 24일, 정부 전자증명서 발급 일시 중단  
→ 약 1시간 30분만인 오전 11시께 이후 정상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마비  
→ 장애 발생 6시간만에 복구

정부 전산망이 일주일 동안 4차례나 차질을 빚는 등 ‘먹통 사태’가 멈추지 않고 있다. 사고 초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다 장애 발생이 반복된 만큼, 국가 전산 서비스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을 열고 “17일 발생한 행정 전산망 장애 원인은 라우터(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 부품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

(TF) 공동팀장인 송상호 송실대 교수는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네트워크 영역에서의 접속 지연 및 이상 유무 확인 과정을 거쳤으나, 라우터 장비의 불량 외에는 다른 이상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라우터나 포트는 가정집에서도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초적인 연결 장비다. 행정망 서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전 본원과 광주 본원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라우터 연결 단자가 손상됐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해당 라우터 장비는 2016년 도입돼 사용기한 만료는 내년까지다. 지방행정 전산서비스를 관리하는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노후화가 장비 불량의 원인은 아니다. 물리적인 부품의 손상이기 때문에 원인을 밝혀내기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미국산 네트워크 장비인 ‘L4스위치’(트래픽을 분산해 속도를 높이는 장치)로 지목하고 18일 오전 장비를 교체했다. 다음날 전산망이 완전 정상화됐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기능에 지연 현상이 발견돼 추가 원인을 찾다가 라우터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19일) 브리핑을 하면서 장애 원인은 L4스위치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리며 ‘추정된다’, ‘판단된다’고 했지 100%라는 것은 아니었다. 가능성이 크다고 했던 것”이

라고 반복했다.

행안부는 19일 행정전산망 시스템 정상화를 알리며 지속적인 상황 관리를 약속했지만, 22일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이 일시 먹통됐고 23일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접속이 중단됐다. 24일에는 정부 전자증명서·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마비됐다.

일주일 새 유사한 사고가 4번이나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해킹설’ 등 외부 개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연중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 연달아 터진 건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시스템별 장애 원인은 제각각이고, 해킹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산망 먹통 사태가 이어지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표현이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23일부터 부산 벡스코에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열고 디지털 플랫폼 혁신 사례를 보여주고자했으나 전산망 장애로 진행에 일부 차질이 생겼고, 부스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정부와 공공행정을 선도한다’며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가 18일 급거 귀국했다. 이 장관이 먹통 사태 이후 20일 대책회의에서 말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 역시 무용지물이 됐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17일 행정 전산망 장애의 경우 하드웨어(라우터 포트 불량) 문제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문제도 함께 연결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며 “행안부가 유사한 포트를 전수조사한다는 전제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산망 시스템 장애 원인이 다르다. 나라장터의 경우 외부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3개 시스템은 내부 관리 체계의 미흡 등이 원인”이라며 “전반적으로 전자정보시스템에 대한 대응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이현 기자 spes@

## 檢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

허위 보도 의혹 허재현 기자 수사  
허 기자 “수사 위법” 심의위 신청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곧 결정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훼손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해달라”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측 신청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15명의 검찰 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원들의 과반수 표결을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선 부장검사)은 지난달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리포액트 사무실과 허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허 기자가 지난해 3월 가짜 녹취록을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보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허 기자는 이달 13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위법하다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그리고 이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 기자는 “위법 절차에 따른 수사이므로 공소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휴대폰 포렌식 절차와 진술 조사 등을 검찰 수사심의 부의위원회가 예정된 27일 이후로 미뤄달라. 부의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28일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나 범인 등 혐의가 확인됐다. 수사대상이 되는 건 명백하다”며 “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규정은 없다.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spes@



기름값 7주째 하락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7주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의 광장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지난 주 대비 25.9원 내린 리터(ℓ)당 평균 1660.2원이었다. 경유 판매가격은 26.5원 내린 평균 1607.8원을 기록했다. 뉴시스

## 서울 돈의동 쪽방촌에 ‘온기창고 2호점’ 개소

서울시가 동자동 쪽방촌에 이어 돈의동 쪽방촌에 ‘온기창고 2호점’을 개소한다고 26일 밝혔다. ‘온기창고’는 매장에 후원받은 생필품을 진열해 놓고, 쪽방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배정받은 적금급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가져가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이다.

돈의동 쪽방상담소 1층에 있는 온기창고 2호점은 냉장·냉동고 등의 기자재를 갖추고, 편의점과 같은 포스기 등 여러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상시개관을 목표로 당분간은 화요일·목요일 주 2회로 운영되며, 전담인력 1명과 공공일 자리를 통한 참여로 주민 2명이 함께 꾸려나갈 예정이다.

시는 온기창고 2호점 개점을 준비하며 쪽방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 물건을 기부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함께 추진한 바 있다.

온기창고 2호점은 현재의 후원 물품배분 시스템 개선에 머물지 않고 쪽방주민의 자활·재활사업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 동자동 쪽방촌에 운영을 시작한 온기창고 1호점은 개관 이후로 이달 10일까지 등록 회원 830여명, 이용 인원 총 1만 67명을 기록하며 매일 200명이 상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연 서울시복지정책실장은 “약자와의 동행사업인 온기창고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아 기쁘고 감사하다”라며 “한파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들이, 온기창고를 통해 보다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 근무 중 발 헛디뎈 수술 후 사망한 해군... “순직 유족급여 줘야”

당직 중 사고... 뇌경색으로 사망  
유족, 국방부 장관 상대로 소송  
法 “공무상 사망 인과관계 인정”

근무 중 발 헛디뎈 수술한 뒤 사망한 해군에게 순직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해군 A 씨의 아내 B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군 원사였던 A 씨는 2020년 2월 당직 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고, 중심 잡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손가락 저림 증세가 계속돼 약 2주 뒤 경주 6-7번 간 추간판 제거 수술 및 인공 추간판 치환술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 뒤 어지럼증으로 뇌경색증·폐색성 수두증 진단을 받아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보름 뒤 사망했다. 직접적인 사인은 뇌부종이었지만, 그 원인은 당직 근무 중 당한 사고로 인해 생긴 질병인 우측

척추동맥 박리에 따른 소뇌경색이었다.

아내 B 씨는 남편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의결에 따라 거절했다. 사고 발생 한참 전인 2012년부터 A 씨가 목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당시 질병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심 청구도 같은 연유로 기각되자 아내 B 씨는 행정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와 달리 “고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사망진단서와 법원 감정의 소견을 종합해볼 때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뇌경색은 당직 근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인이 사고 이후 급격히 목 통증 호소했고 그 외의 개인적인 요인은 보이지 않는 점, 2019년 9월부터 관사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망 전까지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3달, 5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달 등 상당한 초과근무를 지속한 점 등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박꽃 기자 pgot@

**KAFB2B**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 농산물 도매유통의 혁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11월 30일에 시작합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란?**

거래체결 후 산지에서 출발,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되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단위 도매시장

**거래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농가소득 제고 및 구매 선택권 강화**

- ✔ 산지와 소비지 직접 거래
- ✔ 구매자가 원하는 곳으로 직배송
- ⋮

- ✔ 저렴한 수수료
- ✔ 다양한 판·구매자 및 거래방식
- ⋮



**품목별 거래 현황**

과일류 · 사과

거래건수 (단위: 건)		누적
(전일)	(전월)	
2	10	29
(금일)	(금월)	
4	13	

거래금액 (단위: 억원)		누적
(전일)	(전월)	
1	5	14
(금일)	(금월)	
2	6	



온라인도매시장 고객센터  
**1877-8786**

농림축산식품부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식당·로비 등 사내 곳곳에 '나눔 키오스크' ... 일상 속 기부



삼성전자가 지역 사회 이웃 봉사활동, 기부, 헌혈 등 일상 속에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이달 1~14일 여러 봉사팀을 꾸려 이웃 대상 대면 봉사과 사업장 인근 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소속 임직원들은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수거)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소프트웨어(SW) 코딩 교육이나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 등 다양한 지역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구미사업장 임직원들 역시 지역 내 시각장애인협

회를 방문해 건강검진 도우미 활동에 참여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임직원들은 광주고려인마을을 찾아 모자이크 벽화를 그리는 환경 개선 활동을 벌였다.

삼성전자는 '일상의 기부'를 모토로 삼아 '나눔 키오스크'를 설치해 적극적인 기부도 하고 있다. 나눔 키오스크는 삼성전자 각 사업장의 사내 식당, 건물 로비, 산책로 등 임직원들의 일상생활 공간에 설치돼 손쉬운 기부를 돕는 기기다.

나눔키오스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사연을 확인해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이 아동에게 소중하게 쓰였다는 피드백을 사내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달 1일부터 2주간은 삼성 전 관계사 임직원들이 하루에 1명씩 특별 기부를 진행했다. 약 2억 원을

모아 어려운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27년간 헌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임직원들은 '누군가 해야 한다면 우리가 먼저'라는 정신으로 헌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1~14일간 나눔위크 기간에 전국 44개 사업장에서 헌혈 버스 69대를 운영해 헌혈에 나섰다. 2주간 4000여 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지난해의 8배에 달하는 인원이다.

지난해는 삼성 관계사 임원들이 특별격려금의 10%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100억여 원의 기부금을 조성, 이를 신형 헌혈버스 제작에 사용하도록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삼성 임직원들이 헌혈 버스에서 헌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 '해피해빗' 일회용 컵 1000만개 줄여



SK그룹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추구'라는 경영철학과 미래사업으로 추진하는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고 취약계층, 재해복구, 스포츠를 통한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전개 중이다.

SK는 2030년 기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 중 1%인 2억 톤(t)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고 있다. 플라스틱컵 순환체계를 만든 '해피해빗'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SK텔레콤은 2020년부터 서울, 제주 등에 AI가 다 회용컵을 분류하고, 수거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시행 2년 만인 지난 6월 누적 1000만 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293톤의 탄소배출저감 효과를 거뒀다.

SK이노베이션은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깅(Plogging)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산해진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산해진미는 '산(山)과 바다(海)를 참(眞) 아름답게(美) 만들자'는 의미다. 지난 한 해에만 SK 구성원을 비롯해 일반 시민 28만 명이 참여했다.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이 산해진미 플로깅(Plogging)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 SK그룹

SK는 친환경 플라스틱 정보 플랫폼 '마이 그린 플레이스(My Green Place)'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쉽게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하도록 돕고 있다. '마이 그린 플레이스'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정확한 분리배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다.

SK텔레콤은 발달장애인 골퍼들을 위한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2023' 대회를 8월 개최했다. 국내 아마추어 발달장애인 골퍼선수들이 세계 각국의 어댑티브 골퍼들이 참여하는 꿈의 무대인 US 어댑티브 오픈 출전 자격을 두고 경쟁하는 등용문 성격의 행사다.

## 美 소아암 어린이 돕기 25년째 진행



현대차그룹은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라는 글로벌 비전에 따라 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 '현대 호프 온 휠스'는 올해 25주년을 맞았다. 호프 온 휠스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현대차는 미국 딜러들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호프 온 휠스 재단을 설립하고, 1998년부터 소아암 관련 병원과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호프 온 휠스는 현대차 딜러가 자동차 1대 판매당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현대차가 이에 상응하는 기부금을 더하는 공동 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830여 현대차 딜러가 참여 중이다. 현대차가 9월 호프 온 휠스 25주년을 기념해 올해 25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누적 기부금 규모는 2억 2500만 달러에 달하게 됐다.

현대차는 최근 인도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인 '현대사마르스' 캠페인을 런칭, 새로운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비정부기구(NGO)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활동



정의선(가운데) 현대차그룹 회장, 장재훈(가운데 왼쪽) 현대차 사장, 호세 무뇨스(가운데 오른쪽) 현대차 글로벌 COO와 호프 온 휠스 어린이 홍보대사 및 재단 관계자, 의료진들이 현대 호프 온 휠스 25주년 행사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을 중장기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기아는 2012년부터 경제, 교육, 보건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인프라와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탄자니아, 말라위,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9개국 거점을 대상으로 중등학교, 보건 센터, 직업 훈련 센터 등을 운영하며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현지 이익을 모두 완료했다.

## 대 잇는 'LG 의인상' ... 누적수상 217명



LG가 'LG 의인상' 수상 범위를 일반 시민까지 넓히며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9월 제정된 LG 의인상은 우리 시대 착하고, 의로운 시민에게 수여되는 대표적인 상으로 자리잡았다. LG복지재단은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고(故) 구본무 회장의 뜻을 받들어 현재까지 총 217명의 의인에게 상을 수여했다.

특히 구광모 LG 대표 취임 이후인 2019년부터는 의인상 수상 범위를 묵묵히 선행과 봉사로 귀감이 된 시민들로 확대했다.

이달 의인상을 받은 김도순 씨는 1996년부터 28년간 매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여러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씨는 3급 지체 장애로 다리가 불편하지만 현재까지 1500회 이상의 재봉 지도를 포함해 총 2만 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김 씨는 의상실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1996년 한국육영학교를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광진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주 6~7시간씩 재봉 지도 봉사를 해오고 있다. 노인 요양원 수선봉사, 장애인시설 목



이달의 LG 의인상을 수상한 광경희 씨. 광 씨는 19년 동안 미혼모 입양아가 입을 배냇저고리와 독거노인을 위한 수의를 직접 만들어 기부하고 있다. 사진제공 LG그룹

욕봉사, 노인 미용 접수봉사 등을 하기도 했다.

이달 상을 받은 광경희 씨는 사회적 기업인 '바늘한땀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2005년부터 19년 동안 미혼모 입양아가 입을 배냇저고리와 독거노인을 위한 수의를 직접 만들어 기부하고 있다.

7월 의인상을 받은 이예분 씨는 1995년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이래 고양 일산에 있는 한 아동복지 시설에서 28년 간 미용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4월에 수상한 이정아 씨는 1988년 경기 부천시에서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해 이후 24년간 묵묵히 선행을 이어왔다.

## '1%나눔재단' 지역사회에 온정 전파



포스코1%나눔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이 재단은 국내 기업 임직원 참여 비영리 공익법인 중 사업 규모가 가장 큰 재단이다.

1%나눔재단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철(鐵)로 희망의 공간을 조성해 주는 '포스코 스틸빌리지(POSCO Steel Village)'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보살핌이 필요한 포항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해피스틸하우스', 2014년에는 광양 지역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스틸복지센터', 2016년에는 인천 지역 영유아복지시설 '동구랑 스틸랜드'를 건립했다. 이외에도 서울시 서대문구 '청년 쉼터하우스', 포항시 청림동 '무료급식소 청림별관', 광양시 중동 학대피해아동단기보호쉼터 '마음나누리쉼터' 등의 복지시설도 1%나눔재단의 성과다.

미래를 이룰 청소년이 각자 원하는 꿈을 펼치고 성공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1%나눔재단의 '두드림' 활동은 매년 홀로서기에



포스코1%나눔재단의 '만남이 예술이 된다' 시즌 3에 참가한 장애 예술인 이남현(가운데) 성악가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

도전하고 있는 26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8년부터 포항·광양 지역 보육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만 18~27세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설정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건강한 자립 로드맵을 함께 그려나가고 있다.

포스코1%나눔재단을 통한 나눔 활동의 조직문화 노후는 5월 미국 보스턴칼리지에서 개최한 기업시민 콘퍼런스에서 'K-기업시민'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 2000년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 달력 92만부 제작



한화그룹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2024년 점자 달력'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

점자달력은 올해로 24년째 이어져 온 한화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2000년, 도움을 호소하는 한 시각장애인의 편지를 읽은 김승현 한화 회장이 "시각장애인들도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발의한 것을 계기로 시작했다.

올해 제작된 점자달력은 탁상형 3만 부, 벽걸이형 1만 부 등 총 4만 부다. 제작 첫 해인 2000년 5000부를 시작으로 매년 시각장애인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발행부수도 늘었다. 2024년 점자달력까지 합하면 누적 발행부수는 국내 최대 규모인 92만 부에 달한다.

점자달력 제작은 기계로 인쇄되는 일반 달력과 달리 점자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점자 인쇄 이후 점자가 유실되지는 않았는지 검수하고, 월별로 인쇄된 달력을 정합해 제본하는 모든 과정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한화그룹이 만드는 점자달력은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달력 숫자의 크기와 농도를 보완하고, 절기와 기념일은 물론 음력 날짜까지 점자로 별도로 표기하는 등 시각장애인들 시선에 맞춰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실제 제작 과정에 반영하기 위

해 매년 점자출판·인쇄 전문 사회적기업인 도서출판 점자와 함께 제작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달력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차별 없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0월 15일 '시각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한화그룹 임직원들이 도서출판 점자에 모여, 2024년 점자달력 제작에도 직접 참여했다.

홍동수(주한화) 회장은 "매년 회사에서 나누어주는 달력만 보다 점자달력 제작에 처음 직접 참여해 보았다"며 "시각장애인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주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보람차고 기쁘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이 제작한 2024년 점자달력. 사진제공 한화그룹

## 수해복구부터 하천정화·소액기부까지 앞장



GS그룹은 각 계열사와 함께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취약 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극한호우, 산불 등 자연재해가 많았던 올해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이재민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줬다.

GS그룹은 7월 충청·전북·경북 등에서 극한호우로 발생한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와 별도로 GS칼텍스, GS리테일 등 각 계열사별로 다양한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GS칼텍스는 지구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화학 기업으로서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친환경 봉사활동과 기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여수와 인천에서는 GS칼텍스 임직원들이 가족, 협력사와 함께 공장이나 물류센터 인근 해안의 쓰레기 수거, 인근 하천 정화 활동, 해안가 청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폐자전거를 분해하여 사용 가능한 자전거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나, 폐플라스틱과 옷가지 등을 활용해 꽃병, 장식품, 컵받침대 등으로 만드는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사원증태고



GS칼텍스 사원들이 사원증을 태그하며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 GS그룹

및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1000원 단위로 기부 가능한 소액기부시스템을 개발해 매월 1회 모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직원 모금액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만큼 매칭해 지역 복지관을 통해 저소득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전달한다.

GS건설은 2009년부터 남촌재단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꿈과 희망의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의 안정된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 5월 1호를 시작으로 290호점까지 오픈했다.

## 창립기념식 대신 희소병 아동 치료비 후원



LS그룹이 창립 기념식 대신 어려운 이웃에 기부해 눈길을 끈다.

LS그룹은 이달 11일 그룹 창립 20주년을 맞았지만, 별도 행사를 하지 않고 희소질환 아동 20명을 선정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창립 이후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보다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글로벌 개발사업, 지역 사회 소외계층 지원, 재해재난 성금 기부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5월 4일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결혼한 가정의 여성 취업과 자녀교육 문제를 돕기 위해 교육·문화 공간인 'LS드림센터'를 베트남 하노이시에 개소했다. 최근 한-베 가정의 크게 급증하면서 맞춤형 복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LS그룹은 현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로 했다.

LS그룹은 이곳에서 각 교육 및 프로그램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해 △한-베 가정을 위한 자립역량강화교육(컴퓨터, 한국어능력시험, 요리, 네일아트)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아동교육(한글교육, 문화체험, 독서교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LS드림센터' 개소식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간판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LS그룹

또 2007년부터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4개국에 대학생과 LS 임직원 25명으로 구성된 약 1000여 명의 'LS 대학생 해외봉사단'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 초등학교생들이 과학실습 교육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안양, 울산, 청주, 동해, 구미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주요 대학 공대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초등학교생들과 함께 자기발전 손전등, 태양광 및 전기 충전 자동차, 센서로 움직이는 트랙터 등 9종의 과학 키트를 만드는 활동을 한다.

## 장애인 가족여행 돕고 베트남 의료 봉사



효성은 '나눔으로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가족 나들이 프로그램 운영, 생필품 후원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는 중이다.

효성은 2011년부터 베트남에 해외 의료봉사단 '미소원정대'를 파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재개된 이번 파견에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의료진과 국제구호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 효성 임직원 등 74명이 현지 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임신·출산 교육을 진행하고, 내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의료봉사와 함께 초등학교생 3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미소원정대' 활동을 통해 수혜를 받은 주민은 총 1만 7000여 명에 달한다.

또한 푸르메재단과 함께하는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장애 가족과 효성 임직원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여행, 장애인 무료 치과 치료 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한 '효성·푸르메재단과 함께하



효성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베트남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봉사단 '미소원정대'를 파견했다. 사진제공 효성

는 가족여행'은 효성 임직원 가족과 장애 아동·청소년 가족이 짝을 지어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행에는 20가족이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로 여행을 떠났다. 2019년부터는 장애 아동의 형제자매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취지에서 청소년 나들이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효성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에덴복지재단에 2014년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해 왔다. 현재까지 약 1만 대 이상의 전산 불용품을 기증했다.

## 임직원 사육 주변 산책한 거리만큼 기부



코오롱그룹은 2012년 사회공헌을 전담하는 조직인 CSR사무국을 발족했다. 이후 '꿈을 향한 디딤돌, 드림 파트너스(Dream Partners)'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코오롱사회봉사단을 창단했다.

코오롱사회봉사단은 연중 4대 봉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매년 학용품 등을 담은 키트를 직접 제작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드림팩(Dream Pack) 기부전사 캠페인'으로 한 해 사회공헌활동의 시작을 알린다. 올해는 새로 출범한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가정의달인 5월에는 봉사 집중주간인 '드림 파트너스 워크(Dream Partners Week)'가 있다. 올해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소외된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해비타트와 사랑의 집 짓기 활동을 진행했고, 지역아동센터의 생활시설 개선에도 힘을 보탰다. 또한 매년 여름과 겨울에 두 차례씩 진행되는 헌혈 캠페인과 '꿈을 향한 삼남길 트레킹'으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코오롱 임직원들이 장애인들과 과천



코오롱사회봉사단원들이 복지기관 참가자들과 함께 삼남길을 걷고 있다. 사진제공 코오롱그룹

사육 인근 삼남길을 걸으며 거리만큼 기부도 한다.

1981년에 설립된 '오운문화재단'과 2002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꽃과어린이'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며 건강한 사회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꽃과어린이는 총 531명의 장학생에게 약 25억 원을 지원했으며, 성금의 일부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하는 '도시놀이터 개선사업'에 지정해 기탁하고 있다.

다문화 및 이주배경 가정 자녀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 지역 아동 돌봄·장병 문화 혜택 제공... 고객 사랑, 사회에 환원



롯데는 사회가 더욱 풍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소외계층의 권리와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사회공헌 슬로건인 '마음이 마음에게'를 바탕으로 여성과 아동, 나라사랑, 글로벌 분야 캠페인에 중점을 두고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26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이달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열린 세계 아동의 날 기념행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아동권리경영실천기업상을 수상했다. '맘(mom)편한놀이터'를 통해 롯데가

지역 아동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맘편한 놀이터는 롯데가 2017년부터 어린이들의 놀이 환경과 교육 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사회 공헌 사업이다. 놀 권리를 점점 잃어가는 전국 곳곳의 아이들을 위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친 환경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다. 현재까지 전국에 24개 맘편한 놀이터를 조성했다. 특히 올해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내아동 놀이시설 설립 수요를 반영, 여수시에 맘편한 실내 놀이터 1호점을 세울 예정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6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에 위치한 공군 제8145부대에 '청춘책방 10호점'을 열었

다. 청춘책방은 군부대 위치 특성상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장병들에게 독서카페 형태로 자기계발 공간을 조성해주는 사업이다.

8145부대에 개관한 청춘책방에는 카페존과 독서존, 힐링존으로 구성했다. 롯데는 2016년 양구 21사단 청춘책방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7년 동안 육군 66개, 공군 9개 등 총 76개의 청춘책방을 지원했다.

올해 공군 10호점을 포함해 해군 근무지 등 총 7개의 새 청춘책방을 개소할 예정이다. 롯데는 국가에 헌신하는 육군 구성원과 가족들이 존중 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자랑스러운 육군가족상'도 후원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맘(mom)편한놀이터 22호점. 사진제공 롯데지주

## 모금 통해 중구청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이마트가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서울 중구청이 펼치는 '2024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힘을 보탤다.

이마트는 2024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나눔 바자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겨울마다 저소득 위기가구가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모금 운동이다. 수익금은 서울 중구 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과 복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740여 개의 물품을 기부하고 이마트 임직원 70여 명이 바자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바자회 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해 중구의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이마트는 5월 서울시 중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을 방문해 전국 30개의 아동양육시설에 53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을 기념해 이마트가 취약 계층 아이들에게 여가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행복을 선물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기부금이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 완구 판매 매출의 1% 나눔



손천식(왼쪽 첫 번째) 이마트 컴플라이언스담당 상무와 김길성(두 번째) 서울 중구청장 등이 22일 서울 중구청에서 열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바자회 물품 전달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남산원을 포함한 전국 아동양육시설 30개소에 소외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여가문화 체험 지원에 쓰였다. 이마트는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과 구호 물품도 기부했다. 신세계그룹에서 총 성금 5억 원을 지원했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의를 통해 임시거주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과 현장구호 인력을 위한 생필품을 기증했다. 이마트는 총주점 등 수해 피해지역 인근 점포를 통해 이재민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생수, 음료, 컵라면 등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 청소년 1만여명에 문화 창작 경험 제공



CJ는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재현 이사장(CJ그룹 회장)의 사회공헌철학을 바탕으로 CJ나눔재단과 CJ문화재단을 설립, 기업의 강점인 문화사업 인프라를 통한 CJ만의 문화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CJ나눔재단은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CJ의 나눔 플랫폼, CJ도너스캠프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단계별 성장에맞춘 다양한 문화체험과 창작 활동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진행한 'CJ도너스캠프 청소년 문화동아리' 사업은 청소년 스스로가 창작자가 되어 기획부터 창작 작품 완성까지 문화 창작 활동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CJ나눔재단의 대표 지원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900여 개 동아리, 1만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송, 영화, 음악, 공연, 요리, 패션 등 총 6개 부문의 문화 창작 및 체험 활동을 지원했다.

CJ나눔재단은 또 작년부터 청소년 문화동아리 '장학'과 'CJ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올해 청소년 문화동아리 사업에는 총 250개 동아리, 2800



'2023 청소년 문화동아리 쇼케이스' 참가 동아리 '대대로'의 창작 안무 무대. 사진제공 CJ나눔재단

여명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그중 26개 동아리가 심화(Advance) 과정에 선발돼 체계적인 문화 창작 교육을 받았다. 올해 대장정의 마무리로 11월 18일, 19일 양일간 Advance 동아리의 소중한 결과물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CJ도너스캠프 청소년 문화동아리 쇼케이스' 행사로, CGV용산·CJ아지트 대학로·광흥창에서 개최됐다.

CJ나눔재단 관계자는 "K-컬처 신드롬 속에서 CJ나눔재단은 문화 창작 분야에 꿈을 가진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재능을 찾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통안전부터 미래 공학 인재 육성까지



현대모비스는 모빌리티 기업이라는 특성을 살려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현대모비스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 교통안전 애플리케이션(앱) '학교가는 길'을 개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통안전 교육 방식을 체험형으로도 확대해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이지무브(Easy Move)'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아동들에게 맞춤형 휠체어나 자세 유지 기구를 비롯한 이동 편의 장치를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등 이동수단에 국한되기 쉬운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전반적인 '이동성'으로 넓혀 다양한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밖에 현대모비스는 미래 공학 인재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는 '아이들에게 과학을 돌려주자'라는 목표로 사업장 인근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공학교실을 운영 중이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교통안전 애플리케이션(앱) '학교가는 길'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2019년부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공학 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차 모형을 제작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코딩을 가르치는 등 보다 '미래차'에 밀접한 교육 활동도 펼치고 있다.

친환경차 시대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환경 경영'의 철학을 담아 친환경 생태순 조성, 생태계 보전 및 복원 활동도 10년 이상 이어오고 있다. 올해에는 충청북도 진천군 미호강 일대 환경 정화 활동과 멸종위기의 민물고기인 미호종개 복원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습지 조성 및 생태 다양성 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 전국 ESG 리더 양성... 112억 금융지원

(260개 사회적경제 기업)



LG화학은 2020년 8월 새 사회공헌 비전인 '그린 커넥터(Green Connector)'를 선포하고 △교육 △생태계 △경제 △에너지 등 4가지 중점 분야에서 사회·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과학·사회교육 활동 '라이크 그린(Like Green)'은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LG화학의 ESG 리더 양성 교육 사업이다. '온라인 멘토링', '그린콘서트', '그린페스티벌', '그린클래스' 등 4가지 커리큘럼으로 운영한다.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물관다양성과 관련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함께 밤섬생태체험관을 조성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해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밤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LG전자와 함께 2011년부터 기후환경 분야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인 'LG 소셜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지원을 통해 260개 사회적경제 기업에 약 112억 원을 지원받았다. 올



ESG 분야 전문가들이 '그린페스티벌'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그린페스티벌은 LG화학의 교육 사업인 '라이크 그린(Like Green)' 활동 중 하나다. 사진제공 LG화학

해부터는 LG화학·LG전자 사업과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협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모색한다.

에너지 복지 사업도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2015년부터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그린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파트너십 프로젝트로 시작된 서울희망그린발전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재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한 발전수익금 연간 6200만 원을 청소년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역 中企 설비강건화 활동 전수... 제조 경쟁력 강화 '엄지척'



현대제철이 충남산학융합원과 함께 충청남도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현대제철은 9월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충남산학융합원에서 충남도 13개 중소기업 26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비강건화 활동 전수를 위한 '현장 5S 및 설비개선 실무과정' 교육을 시행했다.

설비강건화는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성능을 복원해 안정적인 설비 가동 환경을 구축하고 최종 제품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등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할

수있는 혁신활동이다. 현대제철은 설비강건화 활동을 통해 축적한 제조혁신 지식 및 노하우를 충남도 지역 산업체에 전수해 중소기업이 제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충남산학융합원과 공동으로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현대제철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발맞춰 충남도 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본 사업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공장 소재 지역인 인천에서도 친환경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지속 중이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지난달 11일 아름답고 푸른 동구를 만들기 위해 인천 동구 인천교공원에서 화살나무와 철쭉을 심는 '나눔과 희망으로 푸른 동구 만

들기' 행사를 열었다. 현대제철은 애초 나무 심기 및 공원 조성 사업 지원과 관련해 총 1억 원 규모 지원으로 사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감소와 주민 산책로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임직원이 참여해 모금한 4000만 원을 들여 화살나무와 철쭉 500주, 회양목 300주, 문그로우와 잔디 등을 심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푸른동구만들기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지역 환경 정화에 힘쓰고 지역 이웃 주민에게 습터를 제공하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윤범 현대제철 제조혁신팀 기장이 현장 5S 및 설비개선 실무 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제철

# 신토불이 원재료로 농어촌 '맛있는 상생'



농심은 아카시아꿀, 다시마 등 국내 농·어가에서 생산한 다양한 원재료를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농심의 국산 원재료 사랑은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농어가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해 말 그대로 '맛있는 상생'이라는 평가다. 1972년 출시한 과자 '꿀파매기'와 1982년 출시한 라면 '너구리'가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스테디셀러가 된 배경에는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국산 원재료 사용을 이어온 농심의 고집이 있다.

우선 농심은 꿀파매기의 핵심 재료인 아카시아꿀을 재배하는 국내 양봉 농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질병 등으로 양봉 농가의 벌꿀 수확량 감소와 소득 불안정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농심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양봉농협과 함께 '함께하는 양봉' 업무 협약을 맺고, 아카시아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에 힘쓰고 있다. 농심 꿀파매기 1봉지(90g)에는 아카시아꿀 약 3g이 들어가는데, 그간 농심은 매년 160톤(t) 내외의 국산 아카시아꿀을 구매해왔다. 아카시아꿀은 꿀파매기 특유의 달콤한 맛을 내는 주재료이자 50년간 인기를 유지해온 비



농심의 '함께하는 양봉 멘토링'에 참여 중인 안세창(왼쪽) 씨와 고병재 씨. 사진제공 농심

결이다.

너구리 출시부터 42년째 이어온 국산 다시마 어민과 동행도 농심의 대표적인 상생 사례다. 농심은 매년 400톤 안팎의 다시마를 구매해 완도 어민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는 전남 완도군 금일도에서 진행된 다시마 위판(경매)에 참여해 너구리 생산에 사용할 다시마 355톤을 구매했다. 각종 비용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고 품질의 다시마를 구매함으로써 완도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천했다.

# 신선함 전하고 홀몸노인 돌봄... 29년 선행



대구 수성구에서 활동하는 hy의 '프레시 매니저' 박규량 씨는 6월 이른 아침 고객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병원에 갈 예정이니, 이른 배송을 해달라는 홍지운(65) 씨였다. 배송을 서두른 박 씨는 그의 집에 도착해 깜짝 놀랐다. 열린 문 너머로 쓰러진 홍 씨를 발견했다. 고객은 택시만 불러달라고 했으나, 긴급상황임을 느낀 박 씨는 자신의 차량에 태워 홍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박 씨의 빠른 판단으로 고객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대전 중리동에서 활동하는 프레시 매니저 서흥경 씨도 '지역민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활동 20년 차인 서 씨는 관할 지역 내 100여 명의 홀몸 어르신을 챙기며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눈썰미가 생겼다. 아동, 노인 등 각종 실종 문자를 예의주시하던 서 씨는 거리를 헤매는 어르신을 발견, 건강 상태 확인 후 경찰과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들 프레시 매니저는 모두 hy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인 '홀몸노인 돌봄활동'을 실천하는 분들이다. hy는 노인 고독사 문제가 대두하기 훨씬 전인 1994년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노인을 위한 돌봄활동을 펼쳐왔다. 29년간 지자체, 관공서



hy 프레시 매니저가 '홀몸노인 돌봄활동'을 통해 독거노인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제공 hy

등 여러 기관과 손잡고 지역밀착형 선행활동을 펼치며 국내 대표 민관협력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전국 1만1000여 명의 프레시 매니저 네트워크가 있기에 가능하다. 프레시 매니저들은 매일 유제품을 전달하며 홀로 지내는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한다. 홀몸노인의 건강이나 생활에 이상을 발견하는 즉시 주민센터와 119 긴급신고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1994년, 1104명으로 시작된 홀몸노인 돌봄 활동은 적극적인 투자로 수혜 대상이 3만 명까지 늘었다.

# 여성 백일장 등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선정



동아제약이 올해 처음으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도로 2015년 시작했다. 올해 심사는 조직 역량,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 문화예술후원 성과, 최근 3개년 수상 실적, 신규 후원사업 등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해 평가했다. 심사 결과, 우수기관 16곳이 신규 선정됐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동아제약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백일장인 '마로니에 백일장'을 1983년부터 40년 동안 상금과 사업비 전액을 지속 후원해, 국내 여성 문학의 저변 확대와 여성 문인 발굴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은 문학에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당일 선정된 글제에 따라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동화) 분야의 우수작품을 선발하는 글짓기 대회로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여성 문인을 발굴했다.

또 2020년 '문화예술봉사단 메리'와 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동아제약이 올해 처음으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제공 동아제약

있다. 2015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메리'는 청소년과 대학생이 하나 돼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오케스트라와 합창 공연을 하는 문화예술단체다. 동아제약은 시민 관객과 함께하는 문화자선 연주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운영 비용 지원과 제품을 후원하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올해 창립 91주년을 맞이한 동아제약은 종합 헬스케어 회사로,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후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말했다.

# 김장나눔·나무 심기... 지역 맞춤형 봉사



HDC현대산업개발은 연말을 맞아 서울 용산구 소외이웃 월동 지원을 위한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7일 용산구 공유주방에서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 중 취약계층 및 소외이웃 170가구에 임직원들이 직접 담긴 김치 170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그룹 연합봉사로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임직원도 함께 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승환 HDC현대산업개발 매니저는 "ESG 담당자로서 용산지역 소외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차다"며 "특히 맛까지 제대로 챙긴 봉사활동으로 소소한 기쁨을 더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더욱 뿌듯하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본사가 있는 용산에서는 △지역 식재 봉사 △용산복지재단 장애인 물품 지원 △대한노인회 쌀 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대상 쌀 기부 △취약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이 소외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제공 HDC현대산업개발

계층 장애아동 생활지원금 기부 △쪽방촌 냉장고 기부 △해오름빌 벽화봉사 △노인의 날 물품 지원 △용산드래곤즈 청년 직무 멘토링 등을 했다.

전국적으로는 △환경의 날 맞이 광주 나무 심기 △광주지역 생명 팔찌와 소방용품 지원 △논산 지역 소외이웃 생활지원 △심포니 작은 도서관 지원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지원과 강릉 산불 피해 긴급 구호, 중부지방 집중호우 수해복구 성금 지원 등 재난 상황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NH가 손을 보겠습니다

금융의 손길이 닿아야 할 곳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NH농협금융은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농민은 물론,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언제나 농민과 서민의 든든한 금융동반자로서 손 내밀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갑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NH농협금융이 응원합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 “불통사회 만드는 문해력 저하...소통 키우는 국어정책 중요”

**김덕호 국어문화원연합회장**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숨 쉬는 데 필요한 산소와 같아  
입시 위주 교육 문해력 저하...국어문화 발전 언론 역할 커  
전국 22곳 국어문화원, 예산 삭감돼 직원 급여도 못 줄 판

“요즘 문해력 저하가 심화되면서 불  
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  
고 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세대·계층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덕호 국어문화원연합회 회장은 24  
일 서울 강서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진행  
한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소통을 위한  
언어는 숨을 쉬는데 반드시 필요한 산소  
와 같다”며 “국민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국어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천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어문화원은 국어정책에 관한 연구  
및 실행을 통해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  
이고 국어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으  
로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됐  
다. 국어문화원연합회는 전국에 설립된  
22곳의 국어문화원을 묶는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현재 국어문화원연합회는 문화체육  
관광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 국어문화원 지원 사업, 범국  
민 언어문화 개선 사업, 학술용어 정비  
사업, 한글행사 및 한글 우수성 홍보 사  
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매체  
와 함께하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은  
공공언어를 만들고 사용하는 언론사 등  
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쉬운  
우리말 쓰기를 진흥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4년 동안 추진된 사업이었지만,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김 회장은 “특히 공공언어가 이해하  
기 어려워서 대국민 소통이 제대로 이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문해력 사업  
은 결국 소통 사업이다. 비록 예산이 삭  
감됐지만, 향후 사업 규모를 더 키워서



김덕호 국어문화원연합회장은 “문해력 저하로 인한 불통으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국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국어문화원연합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며 예  
산 삭감에 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국어문화 발전을  
위한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은 국민의 소통 과정에서 현장성,  
적용성, 시의성을 갖고 있다”며 “폭격 있  
는 국어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

나 보도에서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  
용하는 것은 국민이 순화된 우리말을 사  
용하도록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  
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회장은 대학 입시 위주  
의 교육이 문해력을 저하하는 주요 원인  
으로 꼽았다. 또 한자어 문맹자가 많은  
젊은 세대, 디지털 문맹자가 많은 노년

세대, 오염된 한국어로 힘들어하는 이  
주외국인 등을 ‘언어 소외 계층’으로 명  
명했다. 그는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속  
적인 교육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생애 주기 맞춤형 문해  
력 교실, 문해력 경진대회 등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현재 전국에는 총 22곳의 국어문화원  
이 있다. 국어문화원에는 원장 1명과 상  
근상담원 3명을 두게 돼 있다. 내년 국어  
문화원 운영 예산은 4억5000만 원이다.  
문화원 한 곳당 1년 예산이 2000만 원 수  
준인 셈이다. 상근상담원에게 제대로 된  
급여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전국 22개 국어문화원의  
구성은 80여 명의 석·박사급 원장과 연  
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의 처우 개  
선과 지위에 대한 보장을 제도적으로 확  
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어 “국어문화원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  
도 국민이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유익한 소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석주 기자 ssp@

## 약점 찾기·탈취 미션... ‘LG 해킹대회 2023’ 본선

전자 등 계열사 29개팀 84명 참가

LG전자가 사내 해킹대회를 통해 사이  
버보안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24일 서울 마곡 LG사이언  
스파크에서 사내 해킹대회인 ‘LG 해킹대  
회 2023’ 본선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  
다. 8월과 이달 초 진행된 예선을 통과한  
29개 팀 총 84명의 직원이 참가했다.

CTO부문 주도로 지난해 처음 개최한  
사내 해킹대회는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며 대회 규모도 확대됐다. 올해는  
LG전자뿐만 아니라 LG마그나 e파워트  
레인, LG CNS, LG유플러스 등 그룹 계  
열사 임직원들도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  
는 일정으로 △임베디드(Embedded)  
트랙 △웹 트랙 △통합 트랙 등 3개 분야  
에서 특정 대상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  
는 ‘약점 찾기’와 자신이 직접 해커가 되  
어 보안 취약점을 공격하는 ‘탈취’ 미션을  
수행했다.



24일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 해킹대회 2023’ 본선 대회. 사진제공 LG전자

대회에 참가한 LG전자 직원은 “스스로  
코드를 짜고 해킹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  
에서 사이버보안 영역의 공격과 방어 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해커의 눈으

로 코드를 바라보니 하나의 취약점이 해  
킹을 허용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  
달았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차기회장 이재목 한국외대 정치외교과 교수 선출

한국외대는 이재목<  
사진> 정치외교학과 교  
수가 사이버커뮤니케  
이션학회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에서 차기 학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1월부터 1년  
이다.

이교수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와  
석사,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5년부터 한국  
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유정 기자 oiljung@

## 예탁결제원, 부산 수영중에 11번째 ‘학교명상숲’ 조성



왼쪽부터 강구현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전봉  
민 국회의원, 옥창연 부산 수영중학교 교장, 박수  
영 국회의원.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수영중학교에  
11번째 학교명상숲 조성을 기념하는 완  
공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24일 열린 기념식에는 강구현 한국예  
탁결제원 전무이사, 부산수영중 출신의  
박수영 국회의원, 전봉민 수영구 국회의  
원, 부산시 교육청 정대호 교육국장 등 증  
권 및 부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완공을  
축하했다.

예탁원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본사  
가 위치한 부산지역의 발전을 위해 2018  
년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추천한 학교  
에 숲을 조성해왔다. 현재까지 6년간 총  
11개 학교에 학교명상숲을 조성했다.

정희인 기자 hihello@

## “대산문학상, 한국문학 세계화 기여할 것”

신창재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독자들에게 다양한 문학작 경험을 제  
공해장차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  
록 돕겠다.”

신창재<사진>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  
린 제31회 대산문학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대산문화재단의 사회적 역할  
을 이치러 강조했다.

대산문학상은 1993년 제정된 종합문학

상이다. 올해 수상작으로는 △시 부문 ‘낮  
이라는 깃’ (김기택) △소설 부문 ‘제주도  
우다’ (현기영) △희곡 부문 ‘당선자 없음’  
(이양구) △번역 부문 ‘Der Wal(고래)’  
(마티우스 아우구스틴·박경희)가 선정됐  
다. 수상자에게는 부문별 상금 5000만 원  
과 상패가 수여된다. 수상작은 주요 외국  
어로 번역돼 해외에 출판될 예정이다.

신 이사장은 “한국의 문학작품들은 우  
리 공동체가 마주한 현실의 문제를 진지  
하게 성찰하며 언어의 경계를 넘어 해외  
의 독자들에게도 호응과 공감을 얻고 있



다”며 “대산문학상이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하는 종합문학상으로 역할  
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  
겠다”고 했다.

김범근 기자 nova@·사진제공 교보생명

## 파리바게뜨, 18년 연속 ‘구세군 1호 성금’

파리바게뜨가 구세군 1호 성금을 전달  
한 데 이어 전국 매장에서 구세군 모금 활  
동을 펼친다.

파리바게뜨는 ‘구세군 1호 성금 전달  
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 파  
리바게뜨는 2006년부터 18년 동안 구세  
군 1호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구세군이 운영하는 프로  
그램을 통해 캄보디아 프레이웁 탄안콕  
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

서관을 건립하는 데 사용된다. 그동안 파  
리바게뜨는 구세군과 함께 식수난으로 고  
통받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한 식수 지  
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탄안콕 초등학교에 위생적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파리바게뜨의  
간식 선물과 문구류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는 12월 1일부터  
전국 매장 내에 미니 자선냄비를 설치하  
고 내년 1월 말까지 모금 활동을 진행한



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QR후원이 삽  
입된 미니 자선냄비를 활용한 디지털 기  
부 방식을 도입해 모금을 독려할 예정이  
다. 김지영 기자 kij42@·사진제공 SPC그룹

##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정년취  
업지원과장 조아라

## 부음

▲구삼례 씨 별세, 공도영(한국지역난  
방공사 부장)·정하(전 봉은중 교사)·미  
정·미월·미숙(이름산부인과 원장) 씨 모  
친상, 박종일(베트남우리은행 법인장)·  
김병오·강경민 씨 장모상 = 26일, 분당서  
울대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8일,  
031-787-1500

▲성병근(전 대한항공 상무) 씨 별세,  
송기양 씨 남편상, 성영자·영선·상연 씨  
부친상, 심홍구·정창훈·조재한 씨 장인상  
= 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8일 오전 10시, 02-2258-5940

▲이순덕 씨 별세, 유정열 씨 부인상,  
유지명(삼성증권 목동WM지점 팀장)·  
지광(LG전자 LED 아웃소싱 개발운영  
팀) 씨 모친상, 이효연(KBS 시청자서비  
스부 팀장)·송선정 씨 시모상 = 25일, 이  
대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8일  
오전 5시, 02-6986-4440

마감 후



박일경  
사회경제부 차장

“연말 술자리가 늘어날 텐데 ‘술개는약’이라고 속여 건넨 마약을 숙취 해소제로 잘못 알고 먹는 사람들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최근 만난 ‘마약과의 전쟁’ 최전방에서 분투 중인 한 마약 수사관은 “크리스마스 송년 분위기에 긴장감이 느껴지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원·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외교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1년 넘게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정부 부처들이다.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에 올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이다. 9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마약사범(1만8395

신중합성마약 ‘펜타닐’ 폐치 4800여 장을 처방해 준 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4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사량에 해당한다. 특히 마약류 취급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속

칭 ‘셀프 처방’ 사례마저 확인되고 있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부각된 상황이다.

마약과의 전쟁 1년, 좀처럼 마약범죄가 잡힐 기미가 없자 검찰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범정부 마약류 관리방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23일 대검은 의료인 마약 사건 가운데 의료인 자체가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될 때는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일선 검

찰청에 지시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제9조에 의하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 의심 자에 대해 치료 보호 기관장에게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면 보건 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몰수한 마약류를 소각하는 장소를 일반에 공개하려는 검찰 계획이 서울 시반대로 백지화된 일이 있다. 대국민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낸 검찰의 교육 지책이나, 몰수 마약이 폐기 처분되는 과정과 폐기 현장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보안상 문제가 불거졌다. 무엇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고민이었으리라.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한 영웅담을 듣게 될 날을 고대한다.

ekpark@

‘의료용 마약’ 철폐 맞는 이유

명)을 이미 2000명가량 넘게 단속한 것이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2만 명 선이 뚫리기는 처음이다.

급기야 정부는 22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크게 세 가지 틀로 이뤄졌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관 2곳 이상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환자가 2019년 48만 8000명 수준에서 지난해 67만6000명으로 4년 사이 약 40% 급증했다.

10대 청소년과 2030세대 공무원·회사원을 가리지 않고 마약류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했다. 의료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올해 6월 환자 1명에게

이투데이, 말투데이

☆ 밥 파슨스 명언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야말로 성공에 가까워진 때이다.”

미국 사업가다. 자수성가한 그는 늦은 나이에 고대다닷컴(GoDaddy.com)을 창업해 10년 만에 5900만 개의 세계 최대 도메인 등록 서비스 업체로 키웠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그의 재산을 약 2조5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어 골프용품 브랜드 PXG(Parsons Xtreme Golf)를 론칭한 그는 14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50개 이상 설계 특허를 출원했고, 퍼터부터 드라이버까지 풀 라인업을 구축했다. 폴세트 가격이 600만 원을 넘는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50~.

☆ 고사성어 / 이정대화(以靜待譚)

‘고요함으로써 시끄러워지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이다. ‘아군의 태세를 침착하게 기다두고 나서 들뜨고 조급해진 적을 상대하라’는 전략을 말한다. 손자(孫子) 군쟁(軍爭) 편에 나온다. “아군의 태세를 잘 정비하여 적이 혼란스러워지기를 기다리고, 아군의 태세를 침착하게 기다들어 적이 시

끄러워지기를 기다리니, 이것이 심리를 다스리는 방법이다[以治待亂, 以靜待譚, 此治心者也].”

☆ 시사상식 / 스트림플레이션(Streamflation)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 합성어다. 넷플릭스·디즈니 플러스·애플TV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들의 구독료가 연달아 인상되면서 나온 용어다.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으로 영화·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급성장했다. 구독료 평균값이 1년 새 25%가량 오르자 시장은 스트림플레이션이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바로잡습니다=11월 21일자 22면에 실린 [조동근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은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시장 죽이는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논현로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원칙으로 삼았다. 시장경제의 기본인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였다.

반면에 북한은 정부가 기업을 대신했다. 귀속재산은 모두 정부가 가져갔다. 생산의 근간인 토지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해 정부가 재산권을 소유했다.

결과적으로 남한에서 기업이 중심이 되어 시장을 만들어 갈 때 북한은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니 우리는 쌀이남

해방후 10대 경제국 키운 기업존재 부도덕·부정직한 집단으로 취급해 기업 때리는 정치권 통렬한 반성을

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됐다. 교역이 되면 서로가 좋을 텐데 ‘정치적 기적’에 방해가 되니 이 또한 기대할 수가 없다.

인류의 발전도 기업의 등장과 함께 가속이 붙었다. 그 이전에 기업의 역할을 했던 정부와 군대가 있었지만 이들은 남의 것을 뺏아야만 내가 잘살 수 있는 구조였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을 수탈했고 군대는 남의 나라를 빼앗아 식민지를 경영했다.

권력자가 배가 터져라 먹는 동안 국민은 주린 배를 움켜잡아야만 했고 점령당한 식민지 주민들은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다. 미국의 흑인노예가 그랬

고 일제강점기 우리 징병, 징용, 정신대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기업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성장 방정식이 생겨났다. 기업은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개인은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냈다. 경제적 성과를 다시 사회로 돌려져 성장의 기폭제가 됐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도 내가 잘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誌)는 기업을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했다.

한국은 이런 면에서 시장경제의 가장 모범적 사례다. 우리나라가 성장했다고 해서 못 살게 된 나라가 있는가? 오늘날 인구가 5000만이 넘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일급 나라 가운데 우리는 식민지를 경영하지 않고 스스로 발전을 성취한 유일한 사례다.

소위 3050클럽의 다른 여섯 나라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모두 국가 발전을 위해 남의 나라를 침략했던 역사가 있다. 기업이 없던 시절에 잘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과 함께 탄생한 대한민국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기업의 존재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그런데 요즘은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와 ‘노란봉투법’을 보면 기가 막히다 못해 분노가 치솟는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대접을 받을 만큼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집단이었던가?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업을 때리는 정치권은 정말로 혁신적이고 정의로운가?

기업은 장난감이 아니다. ‘횡재세’는 기업 혁신을 가로막고 ‘노란 봉투법’은 기업가 정신을 땅에 떨어뜨리게 할 것이다. 자유와 번영을 우리에게 가져다준 기업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 다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R&D 예산 줄이기가 혁신인가

노트북 너머

김나은  
미래IT부 기자



구개발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R&D 예산 삭감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청년 연구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청년 연구자들의 여론이 악화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4대 과기원 총학생회 대표단을 만나

‘나눠먹기식 R&D 예산 혁파’를 지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재미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 참석해 “한인미래세

대 연구자들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에 관계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정부 지원으로 해외에서 박사후과정을 밟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부 지원이 끊기거나 한국으로 돌아가도 일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 교수들은 예산 삭감 소식에 벌써 정부 연구과제 감소로 교수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내년·후년 연구실 운영이 막막하다고 토로한다.

과기정통부는 28일 정부의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R&D를 혁신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 전에 어떠한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R&D 예산을 조정할 것인지, 예산을 줄이면서도 어떻게 혁신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순된 메시지를 정리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먼저다.

better68@

## 저출산 해법 '다양성'에 길 있다

'0.70', 이 숫자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있는 이들은 알 것이다. 지난 분기 한국의 출산율이다.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치이다. 한국의 저출산 위기는 굳이 통계적 수치로 보지 않아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필자는 곧 40대를 맞이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중에 자녀가 있는 친구보다 하나도 없는 친구가 조금 더 많다.

이렇게 극심한 한국의 저출산 위기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집값 폭등, 사교육비를 포함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 부담, 맞벌이 증가로 인한 양육 공백... 그런데 앞의 원인들도 심각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원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한국의 사회적 망탈리테(mentalite)에 '삶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은 특정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결혼과 자녀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삶의 방식에 정답이라는 것이 있으며, 그것을 맞추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말이다. 예컨대, 결혼식은 호텔예식장에서 해야 하며, 신혼 생활은 수도권 내의 신축 아파트에서 해야 하고, 아이를 낳으면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삶의 조건들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들은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한다. 이와 같은 삶에 대한 가치관은 유럽에서의 사고방식과 많이 대조된다.

필자의 유럽 친구들은 경제력이나 가정 형태와 상관없이 현재 대부분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다. 프랑스인 친구 A는 11년 전 가장 먼저 아빠가 되었다. 대리모를 통해 아들을 낳은 그는 작은 월세방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다. 가장 많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덴마크인 친구 B 또한 지은 지 100년이 넘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작은 아파트에서 자녀 넷을 키우고 있다. 자동차가 없는 이들 부부는 주말에는

### 전문기자의 눈

김성희  
전문위원·언론학박사



남편과 각자 아이들을 돌씩 자전거에 태우고 여행을 다닌다고 한다. 한국의 친구들보다 약조건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속물적이라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유럽의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에는 그만큼 유럽 사회가 다양한 삶의 형태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 A와 B가 한국인이었다면, 자녀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자녀를 가질 수는 있어도 아마 행복하게 양육할 수 없

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월세 집에 자라도 없이 아이 넷을 낳았다고 하면 "대책 없다"는 비난을 들었을 테니 말이다.

수년 전 진화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저출산 위기에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많은 이들이 진화를 우수성을 향해 나아가는 수직적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화의 핵심은 '다양성의 증가'에 있다고 홀(Hall)을 비롯한 생태학자들은 말한다. 진화라는 것은 1차적으로 생태계의 지속과 번영을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각각의 개성대로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와 삶의 방식을 가진 개체들이 필요하다. 나뭇가지에 그물 집을 짓는 거미가 있는 반면, 땅 속에 굴을 파는 거미가 있듯이 말이다. 이러한 다양성의 증가를 통해 생명체의 여러 종(種)은 생존해 왔다. 한국인이라는 인간의 한 종이 소멸하지 않으려면, 오랜 세월 동안 지구가 그래왔듯이, 한국 사회가 '우수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다.

### 삶의 방식에 '정답' 있는 한국사회

### 벗어나면 결혼·출산 엄두도 못내

### 다양한 삶 존중받는 '문화' 아쉬워

### 노무, 특!

##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의 개념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으로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1주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주 40시간제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에 익숙하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된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가 1주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 최대 32시간까지만 적법한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 위반으로 판단되

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을 계산하거나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근로시간'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실제 근로시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와는 다르게 과하게 짧게 약정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주휴수당을 배제시키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로서 부정될 여지가 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그 개념과 산정방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오수영 노무법인 해담 서울지사 대표 노무사

### 사설

## 일주일에 4번 먹통... '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국가 전산망 장애로 '디지털 정부' 입간판이 무색하게 됐다. 단일주일 사이에 릴레이 경주를 하듯 연속적으로 불거진 장애 증상이 4건이다. 지난 17일 '새울행정시스템'이 먹통이 돼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사흘간 빚었다.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시스템에,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문제가 생겼다. 24일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연쇄 사고도 한심하지만, 원인 분석, 대책 수립 등 사후 대응이 어설피른 점은 더 큰 문제다. 1976년 디지털 정부의 첫발을 내디딘 이래 반세기가 갓게 체제 홍보의 단골 소재로 썼던 '전자정부 선진국'은 대체 어디 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조 기 원인 파악조차 안 돼 국민 불신과 불안감을 키운 부분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능력도 없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엄중히 자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그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라우터의 포트 불량을 17일 발생한 먹통의 이유로 진단했다. 앞서 원인으로 지목했던 L4(네트워크 장비의 일종) 스위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번복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진단을 100% 믿고, 당국의 대응 능력이 전적인 신뢰를 보내기는 이미 어렵게 됐다. 실로 뼈아픈 대목이다.

디지털 정부의 가장 큰 기반은 국민 신뢰다. 다수의 유권자, 납세자가 등을 돌리면 예산 할당부터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국민 불신이 움틀 사각지대를 깨끗이 털어내야 한

다. 미봉책은 금물이다. 정부 행정 전산망은 복잡한 시스템이어서 특정 부문의 물리적 손상 때문에 광범위한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는 정부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부터 경청할 필요가 있다.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려면 귀를 넓게 열어야 한다.

이번 4건의 사고는 평상시에 발생했다. 전경도, 공황도, 관련 분야의 파업도 없었다. 현재로선 외부 해킹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믿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연쇄 먹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됐다. 평상시에 이럴 수 있다면 비상시엔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사회, 경제, 국가안보에 미칠 피해를 미리 방지하려면 눈을 크게 떠야 한다.

정부는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기술만으로 공공 전산망을 제어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게 된 모양이다. 시대착오적인 현행 규제 탓에 정부 시스템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업체가 1400여 개나 된다. 역대 정부가 계속 지도 없이 미로를 헤매는 꼴의 자충수를 뒀은 결과가 이렇다. 통합적 대응이 가능할까 답이 없다. 위기가 때론 기회다. 디지털 정부를 흔드는 위해 요소를 차체에 정밀 점검해야 한다. 2019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무르는 '차세대 지방행정 공동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정부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으로 취급하는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 떠오르는 '청색경제 시대'

### 플러자

윤기영  
한국외대 겸임교수  
경영학부 미래학



'청색경제(Blue Economy)'란 바다 경제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C)는 '해양, 바다, 연안과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 이는 상호 연결된 기존 및 신흥 부문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고 정의한다. 청색경제는 해운물류, 해안 및 바다 관광, 해안 보호, 수산업과 양식, 해양자원, 바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와 탄소포집 관련 경제를 포함한다.

2023년 청색경제는 전 세계 경제규모 1500억 달러, 일자리 3000만 개, 양질의 단백질을 30억 명에게 공급한다. 2030년 경제규모는 3000억 달러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한국의 청색경제는 암울하다. 어촌의 경우 2045년 80% 이상이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 지방소멸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 어촌 고령화, 어가소득 감소, 어로 활동의 고됨, 귀어인에 대한 차별 등이 이유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로 특징 지워지는 21세기 전반기에 청색경제의 중요성을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는 반복해서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청색경제는 어둡다. 아이러니를 넘어서 비극적이다. 한국의 청색경제를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 지방소멸보다 심각한 어촌소멸 대비

미래전략과 청색경제 전략을 결합해야 한다. 우리 바다의 수온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산물 생태계의 변화를 전망하고, 예측해야 한다. 지구별·업종별 수협과 어촌계가 예측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돌발변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025년 지구 해류 시스템이 정지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이 경고가 실현될 가능성은 작으나, 현재의 기후온난화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해류 시스템이 정지할 것이다.

어가소득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어업이 기업화되어야 한다. 어업의 기업화는 청년 어민의 벤처기업화와 수협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 등을 통해 가능하다. 벤처기업 생태계를 정부와 수협이 주축이 되어 가꾸고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청색경제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 자율주행 양식 어선, 스마트 로봇과 대양 사물통신으로 바다 양식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저궤도위성통신망을 이용한 바다 통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어업 로봇 시스템을 다른 나라의 청색경제 전반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밀육지양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어촌 기업화로 '한국판 니폴리' 건설해야

청색탄소(Blue Carbon) 관련 산업을 어촌의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로봇을 이용하여, 탄소포집을 위한 해조류를 상대적으로 깊은 바다에 심고 가꿀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을 어촌과 수협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도 기획해야 한다.

그밖에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이후의 우리 어촌과 러시아 어촌과의 경제적 연맹 전략, 현장주의 중심의 청색경제 전략, 도시에 양질의 단백질 공급을 위한 농협과 수협의 협업 전략, 정밀육지양식 체계구축 전략, 수산물 양식·가공·유통 표준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전략, 소멸하는 어촌을 디지털 한국의 니폴리와 한국의 크레타섬으로 재생하는 변화의 씨앗 전략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섬 거주 주민과 어민이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자유롭게 일하고 건강하게 상상하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를 염두에 둔다면, 바다가 생명이다. 어민이 중심이다. 청색경제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장 큰길 중 하나다.

###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국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부산이  
한류의 중심이라 안자나

[해운대 거리에서, 부산 댄스 크루 이의현 전효빈 정화영 최승환 허석양 님]

2030 부산세계박람회  
**BUSAN  
IS READY!**

부산에서 시작해 전세계가 함께하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가치를 위하여

**미래,  
같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